Weekly 공감

2011.10.12 NO.129
gonggam.korea.kr



황금빛 노을 별 헤는 밤 오토캠핑으로 즐긴다

P29~45

백제보 이어 죽산보 개방… 16개보, 주민 곁으로 성큼 P22~26

집중기획 F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 국제도시 꿈꾼다 P16~21

세계인의 스피드축제 F1 질주!!



FORMULA 1™

KOREAN GRAND PRIX_YEONGAM

2011.10.14~16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등급	좌 석 명	티 켓 가 격 (원, 부가세 포함)		
		전일권(10/14~16)	일요일(10/16)	토요일(10/15)
R	메인그랜드스탠드	890,000	720,000	460,000
S	그랜드스탠드 A	690,000	540,000	370,000
A	그랜드스탠드 C / D	510,000	410,000	260,000
B	그랜드스탠드 B / E / F / G / H / L / M	380,000	280,000	170,000
C	그랜드스탠드 I / J	180,000	145,000	87,000

※ 6월말(20%), 8월말(10%)까지 조기구매 할인율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50% 상시 현장할인

티켓구매 : www.koreangp.kr www.interpark.com 콜센터 : 1588-3448

Reader & Leade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오토캠핑은 가족 간 소통놀이


조선DB

안경원
(사)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 사무총장

2012년 우리나라는 오토캠핑인구 1백만 시대에 돌입한다. 이는 핵가족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인 놀이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가족 간의 소통의 놀이문화를 갈구하던 요구가 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초지를 찾아 이동을 하며 가축을 길러야 했던 유목민의 생활, 집시들이 생활도구를 포장마차에 싣고 옮겨다니며 생활해야 했던, 살아남기 위해 전쟁터에서 야영을 해야 했던 생활 그 자체가 캠핑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오토캠핑의 발전은 생존을 위한 캠핑에서 가족형 레저문화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오토캠핑은 1980년대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보유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하고 전국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본격적인 '마이카시대'가 열리면서 서서히 불붙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1천8백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가 보급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오토캠핑장 조성을 장려하면서 전국 각지에 오토캠핑장이 개장됐다. 기존의 캠핑장을 비롯하여 5백여 개의 크고 작은 오토캠핑장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규로 생겼다. 편리하고 다양한 캠핑산업용품도 빠르게 개발·보급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오토캠핑 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오토캠핑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캠핑은 낭만, 개성, 열린 마음이 어우러진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더해져 캠핑의 기쁨은 더욱 커진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자연을 벗 삼아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낭만과 캠퍼 자신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텐트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처음 만나는 캠퍼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캠핑은 낭만, 개성, 열린 마음이 어우러진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더해져 기쁨은 더욱 커진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는 1백 년 이상 된 캠핑클럽과 캠핑장들이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캠퍼들 스스로가 '환경보존'이라는 철칙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캠핑이 주는 즐거움 중 으뜸은 단연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다. 캠핑장 주변의 토산물을 재료로 만든 캠퍼음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야외에서 직접 만든 즉흥 음식이라 그 맛이 수라상에 뒤지지 않는다. 또한 캠핑장 주변지역에 조성된 역사탐방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는 것 역시 캠핑의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즐거움만 누리고 책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오토캠핑 문화가 정착되려면 캠퍼들 스스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을 지키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살아 있을 때 제대로 된 캠핑의 묘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는 1백 년 이상 된 캠핑클럽과 캠핑장들이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캠핑클럽과 캠핑장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캠핑을 하는 캠퍼들 스스로가 '환경보존'이라는 철칙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캠핑장 환경은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캠핑장과 그 주변의 환경보호에 대한 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G

Contents

NO.129 2011.10.12 통권 230호



일러스트 · 이철원

기획특집

저 별은 나의 별! '추억마차' 오토캠핑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별빛은 더욱 청아합니다. 숲의 숨소리는 속삭이듯 나지막해집니다. 자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대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계절입니다. 캠핑을 떠나야겠습니다. 캠핑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여행법이니까요.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행복한 시간이겠지요. 다행히 아름다운 강과 산, 들판에 편리한 캠핑장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떠나보세요. 번잡한 일은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자연을 호흡할 시간입니다.



표지 이야기 태양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며 찬란한 빛의 축제가 열립니다. 어둑해진 캠핑장에선 이야기가 흐릅니다. 가족의 얼굴, 이렇게 오래 정성들여 바라본 것이 언제이던지요.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의 궁평유원지입니다. 조금만 나가도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 · 김승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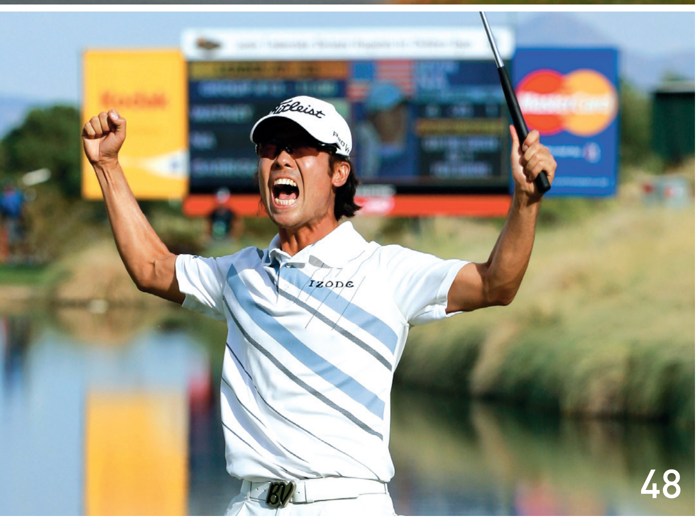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10.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16


48


50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27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4대 종단의 축구경기 뜻깊어

128호 '대학생 기자가 가본 현장'을 통해 소개된 4대 종단 축구 대회 기사를 읽으면서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 '축구'라는 공통분모로 화합의 장을 마련한 현장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종교의 벽조차 허물어버리는 스포츠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화합의 장이 자주 생겨 국민들이 밝고 건강한 종교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자전거길이 있어 더 아름다운 올 가을

자전거 동호회의 한 사람으로서 128호 기획특집으로 다루어주신 '자전거에 건강 싣고 가을 싣고' 기사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생태공원 조성과 친환경 수로로 변모한 강변로를 따라 가족,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클리 공감〉 독자들도 올 가을에는 자전거 타기로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소를 얻어 보세요.

전경욱 (경기 평택시 안중읍)

인생을 연기하는 배우로 남길

며칠 전에 영화 〈도가니〉를 보고 128호에 공유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영화관에 다시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학교의 미술선생님 강인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 낸 공유씨의 연기도 좋았지만 '영화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그의 말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름 하나하나에 인생을 담는 배우로 우리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순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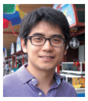
이제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때

127호 포커스 '한국은 국제사회에 받은 것 이상 보답'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UN 참전용사들이 한국이 UN 회원국 가입 2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뿌듯해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UN 회원국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 활동의지를 널리 알린 만큼,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황경호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이준섭 (연구원·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자전거길·내년 예산 소개 기억에 남아"



〈위클리 공감〉을 접한 계기는?

"작년에 부산 출장을 위해 KTX를 탔는데 이 책이 객실에 비치되어 있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읽다 보니 어느새 한 권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한 주의 정치·경제적 이슈를 이 얇은 책 안에 압축해 놓아 참 좋았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홈페이지를 통해 〈위클리 공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128호를 읽은 소감은?

"확실히 가을이라 그런지 자전거길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평소 자전거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치가 좋은 길을 찾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마침 4대강을 따라 자전거길도 열린다니 올 겨울 동안 체력을 키워서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내년 예산의 주요내용을 알려준 기사도 참 좋았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참 민감하잖아요. 내년엔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의 핵심인 '서민공감 12대 과제'가 꼭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위클리 공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치·경제 분야의 기사를 읽다 보면 가끔 용어가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그 뜻을 찾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상식의 차이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용어나 정책의 배경 등을 각주를 통해 간단히 알려주면 더욱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를 공부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상식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 림

법질서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질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생활 속 작은 기본을 지키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질서, 약속과 신뢰 등의 주제를 만화와 포스터, 게임 시나리오, UCC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수상작은 12월 7일에 발표한다.

접수 기간 | 11월 23일까지

참가 대상 | 제한 없음

공모 내용 | ① 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배려 등 기본을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쉽게 표현한 16컷 내외의 만화(웹툰, 카툰) 또는 포스터

② 영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관용과 배려 등 기본을 실천하는 내용과 관련된 게임 시나리오(아이디어, 이미지 포함)

③ 법질서를 주제로 한 CF,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자유형식의 UCC

참가 방법 | 온라인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공모전 홈페이지(www.lawnorder.go.kr)에 접수. 단, 작품 크기가 100메가바이트 이상일 경우 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406호 법질서 선진화과

시상 내역 | 대상 1인 상장 및 상금 3백만원, 우수상 2인 상장 및 상금 각 1백50만원 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www.lawnorder.go.kr ☎02-2110-3726, 3464

우리 일터를 자랑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고 싶은,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로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일터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 일터만의 특징이나 자랑할 점, 다양한 규정준수, 노사 화합의 모범사례 등의 사례를 글짓기나 포토에세이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뽐내면 된다. 결과발표는 오는 11월 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모집 기간 | 10월 31일까지

참가 대상 | 대한민국 근로자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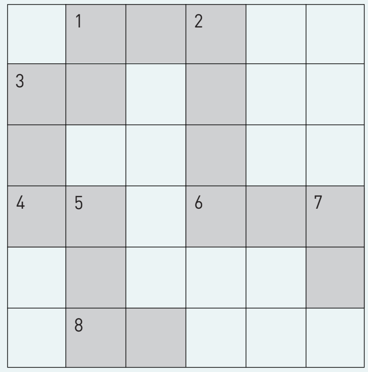
공모 내용 | '우리 일터를 자랑합니다'란 주제로 일터와 관련된 회사의 근로조건 및 근로관행을 글짓기나 포토에세이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모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moel_workplace@nate.com)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인 3백만원, 우수상 2인 각 50만원

좋은일터 만들기 트위터 twitter.com/model_workplace ☎02-555-6355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0월 2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에서 카누, 요트 등 수상 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놓은 물길입니다.(50쪽에 힌트)
3. 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4. 보석으로 장식한 띠.
6. 두 사람이 한 성부씩 맡아서 같이 노래를 부르죠.
8.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곳.

세 로

1. 깃대나 창대 따위의 끝에 끼우는, 끝이 뾰족한 쇠.
2. 길이 구부러지거나 꺾여 돌아가는 자리.
3. 충남 부여군 부여읍 · 청양군 청남면 일대 금강 6공구에 세워진 보로, 지난 6일에 공개됐죠.
5. 발해의 시조. 698년에 진(震)을 세워 왕이 되고, 713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죠.
7.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함. "한글은 세종대왕이 OO하셨다."

〈Weekly 공감〉 127호(9월 2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미수가리 5 레퍼리 6 갈대 7 타이 8 물결
세로 1 가수 2 트레킹 3 미리 4 가을걷이 7 타결

〈Weekly 공감〉 12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철호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고현구 · 경기 광주시 역동
박계영 · 부산 북구 만덕2동
안 윤 ·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유도임 · 대전 서구 만년동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확대

아동·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6개 계층 대상으로 밀착 지원

예산안에서 일반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크고 화려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가 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박하지만 실제 생활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이다. 2012년 예산안에서도 이런 '작지만 강한' 사업들이 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가 그것이다. 2회에 걸쳐 12대 과제를 소개한다.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아동·여성, 청년·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6개 대상을 위한 정책이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 정책은 아니다. 해당 국민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다. 12대 과제가 실시되면 달라지는 서민들의 삶을 미리 그려본다.

❶ 취학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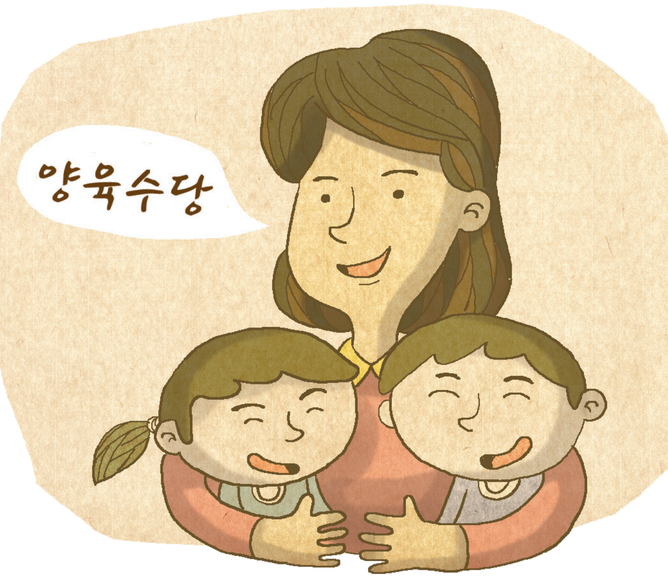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혜란씨(가명)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0개월 된 장애아 딸 때문이다. 장애아 딸을 기르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다른 애로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먼저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다. 믿고 맡길 곳을 발견하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자니 부득불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다. 의료비도 많이 들지만 맞벌이를 할 수 없어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박씨가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현재 박씨는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큰돈

조선DB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문화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경로당을 포함한 1만곳의 어르신시설에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지방문화원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시 범어동 경로당 어르신들의 공연장면.



일러스트 · 유재일

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 돈도 몇 개월 후면 사라진다. 현 규정은 36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박씨의 부담은 한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처럼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6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수당액도 늘렸다. 현재 수당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증액된다.

❷ 입양아동 양육수당 50퍼센트 확대

입양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불임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인표 신애라 부부, 윤석화, 이아현 등 공개입양을 하는 연예계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안젤리나졸리 브래드피트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입양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입양은 여전히 어려운 결정이다.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처럼 사랑과 정성을 쏟지만 보이지 않는 편견이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입양을 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연예계 스타들처럼 경제력이 넉넉한 입양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입양가정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백20퍼센트를 넘는 가정은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다.

내년 복지예산 6.4퍼센트 늘어난 92조원

재정건전성과 삶의 질 개선 함께 충족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6조원 불어났다. 총지출 증가액 17조원 가운데 지자체 교부금 6조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11조원이므로 복지예산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도 올해 28퍼센트에서 28.2퍼센트로 증가했다.

특히 맞춤형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20.8조원에서 25.2조원으로 21퍼센트 불었다.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맞춤형복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복지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생애주기별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의 서비스를 높인다. 수혜대상별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은다.

보육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었다. 5세 누리과정을 두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직후 돌봄서비스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은 5만6천명에서 6만5천명으로 늘린다. 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등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넓히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적용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은 늘린다.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자녀학자금, 산후조리비 등 생활자금 융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1천8백명 증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과 노후임대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필수·공공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담금을 기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린다. 정신보건예방사업을 확대해 자살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충할 예정이다. 기본 보상금을 4퍼센트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은 올해보다 2배 올린다. 또 노령화되는 유공자를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하고 국립묘지를 확충한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7.8퍼센트 늘어난 3천9백70억원을 투자한다. 해외진출도 돕는다. 글로벌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화장품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러스트 · 유재일

내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50퍼센트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던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미 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정주씨(가명)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입양 전에 했던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만 늘어서 한명 더 입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며 “정부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늘려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추가 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❸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통령 드림 장학금’

고등학교 2학년인 최민성씨(가명)는 믿기 힘들었다. 자신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2012년에 신설된 ‘대통령 드림 장학생’에 선발된 것이다.

최씨는 알아주는 수재다.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역사를 좋아한다. 저명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최씨의 꿈을 가로막는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 있고 어머니는 식당일로 근근이 가정을 꾸려나간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은 최씨처럼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1년 동안 1천만원의 학업준비금을 지급하고 해외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연간 5명으로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발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소득 5분위 이하(하위 2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서류심사, 심층면접,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을 뽑는다.

❹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 제공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4인 가족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몇만 원은 있어야 한다. 뮤지컬을 보려면 단위가 몇십만 원으로 올라간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라도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영화 한 편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송정동에 거주하는 김동민씨(가명)가 그런 경우다.

김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은 중학교 2학년, 작은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김씨는 두 딸에게 늘 미안하다.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키지도 변변한 문화생활을 시켜주지도 못해서다. 정부에서 일 년에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입장료가 비싼 3D영화는 돈을 얹어야 볼 수 있다.

김씨의 미안함은 내년부터 다소 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을 늘리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가구당 5만원 지급은 유지하고 10~1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엔 자녀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씨의 경우 기존의 5만원에 두 자녀의 몫 10만원을 합쳐 연간 1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받게 된다. 돈 걱정 없이 두 딸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의 입가엔 벌써부터 웃음이 돈다.

❺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이동춘씨는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은퇴한 지 3년, 할 일도 갈 곳도 마땅치 않다. 변변한 취미를 갖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다. 젊은 시절 주위에서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못 들은 척했다. 이제 시간 여유는 많아졌지만 무언가를 배울 기회도 같이할 사람도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내년부터 경로당을 포함한 전국 어르신시설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확대된다. 생활체육용품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 용품을 활용한 활동을 교육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천

하는 1천 곳의 시설에만 하던 지원을 1만 곳으로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운동을 배우고 함께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결성과 대회 참가까지 연계 지원된다고 하니 새로운 목표와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기뻐했다.

❻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박금순씨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통기타를 배우는 것이다. 젊은 시절 통기타를 둘러메고 다니던 또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통기타를 배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여성이 통기타를 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지금도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배움의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처럼 독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학원에 다니자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거니와 남들의 눈총이 껄끄럽다. 자신과 동년배의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박씨는 소망하고 있다.

2012년엔 박씨의 소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2백28개의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1백 곳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확대해 참여 어르신을 3천5백명에서 7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진다. '문화나눔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축제에도 참가하고 양로원 등에서 공연도 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일러스트·유재일

이것이 궁금해요

저소득층 대학생 22퍼센트 등록금 부담 완화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갈리기 마련이다.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예산안의 핵심내용을 정리했다.

Q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되나요.

A 국가장학제도를 개편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경우 평균 22퍼센트 가량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소득과 성적, 개인형편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원 폭을 결정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 지원은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Ⅰ유형'은 소득 기준 기초생보자에서 3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1백~20퍼센트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 'Ⅱ유형'은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적용되며 평균 58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1.5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Q SOC 예산 증액은 선거용이라는데.

A 결론부터 말하자면 SOC 예산은 올해 24.4조원에서 22.6조원으로 7.3퍼센트 감소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올해 완공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SOC 예산은 4.5퍼센트 정도 늘어난다.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와 평창동계올림픽에 필요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약 7천억원, 1천억원 증액됐다. 그렇지만 이를 선거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사업은 오히려 투자규모가 4.5조원에서 4.2조원으로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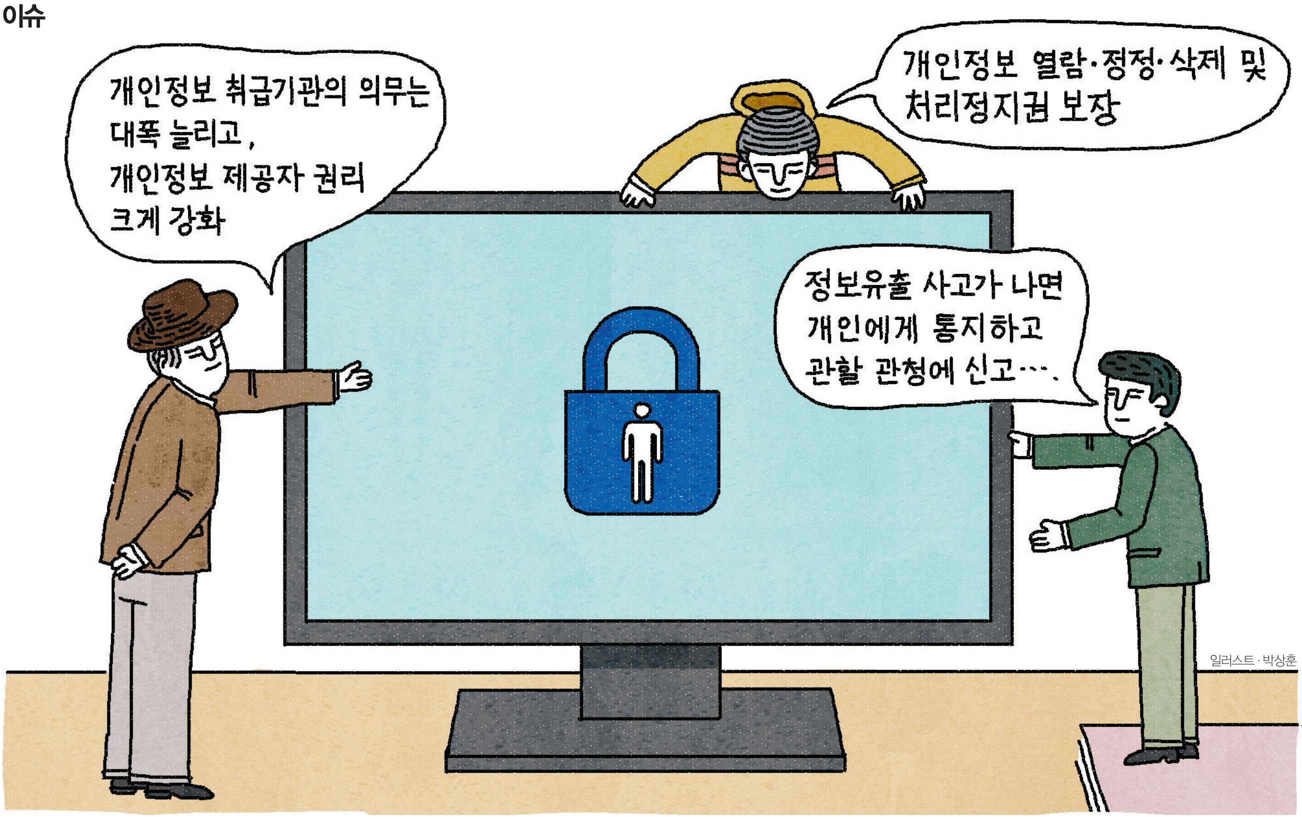
Q 중소기업 지원 소홀하지 않나요.

A 2012년 예산의 지출이 전년에 비해 5.5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중소기업 예산은 3.1퍼센트 늘어 중소기업 지원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 국제기구에서 들여온 차관의 원리금 상환 등 자연감소액을 제외하면 실질증가율은 8.1퍼센트에 이르러 전체 지출증가율을 상회한다.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인 2.2퍼센트와 비교해도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했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중소기업 지원은 경쟁력 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책자금을 3.2조원에서 3.4조원으로 늘렸고 기술개발 자금은 6천2백88억원에서 7천1백5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복원을 위해 현대식 개량 점포인 나들가게를 1만 개로 확대하고 2천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Q 지방재정 악화 대책이 있나요.

A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지방재정이 부실해진 측면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0.2조원에서 9.6퍼센트 증가한 33.1조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도 올해 2.8조원에서 3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교부금도 3.2조원 늘고 국고보조금도 8천억가량 불어난다.



일러스트 · 박상훈

CCTV 함부로 찍었단 법으로 찍힌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저장 못해

지난 9월 30일부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천적으로 저장할 수 없는 등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의무는 대폭 늘리는 반면, 개인정보 제공자의 권리는 크게 강화하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지난 10월 3일 CCTV 3대가 설치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마트. 어디에도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없었다. 입구의 작은 모니터 3대에서 CCTV가 촬영하는 화면이 지속적으로 나올 뿐이었다. 마트 주인 김모(45)씨는 "좀도둑이 많아 5년 전에 설치했다"며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1백여미터 떨어진 편의점에도 CCTV 3대가 설치돼 녹화되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 전모(54)씨는 "안내문구를 적는 일이 어렵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했겠느냐"며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구청이든 경찰이든 얘기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CCTV 안내문 부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안내문을 붙인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업체들은 "우리는 법이 바뀐다는 것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4항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달라진 법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무대상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

지난 3월 개정돼 9월 30일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의무 적용대상과 보호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CCTV와 같

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의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자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 대상자가 공공기관이나 이동통신사와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 이용자 등에 그쳤지만, 이제는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단체·개인·헌법기관 등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도 기존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던 개인정보 파일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민원신청 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개인정보 제공)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자 모두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외에 다른 방식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밖에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과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단체소송 및 집단분쟁 조정이 도입되는 등 피해구제 방안도 대폭 늘어난다.

일본 · 유럽과 보호수준 맞추려면 법시행 서둘러야

규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의 원천적 처리 금지원칙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민번호 입력 외 다른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CCTV 관련 규제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공공과 민간에 동일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원칙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행정안전부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재정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나 암호화를 하는 문제 등은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시행 중인 일본과 유럽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따라가려면 한국도 신속하게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오동룡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달라지나

대표전화 아닌 개인 사무실 번호도 개인정보

Q 전화번호부, 공개된 게시판, 인터넷 등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

A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본인)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춰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Q 사무실 내 개인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대상인가.

A 회사의 대표번호가 아닌 특정 개인만 이용하는 사무실 전화번호라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Q 임직원의 이메일, 이메일에 포함된 고객정보 등 제3자 정보의 경우도 개인정보가 되나.

A 이메일 주소 그 자체는 개인정보일 수 있으며, 임직원의 이메일에 포함된 제3자의 정보(이름·아이디·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Q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면 문제가 없나.

A 경품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별도의 상품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출시를 할 때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Q 직원 채용시 이력서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직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동의가 필요한가.

A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교육·증명서 발급·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다.

Q 성형외과에서 성형환자들의 성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병원 홈페이지의 '성형 성공 사례'에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

A 병원에서 환자의 성형 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 또는 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행위'에 해당된다.

Q 학교 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등 공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은 어떻게 되나.

A 이른바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고,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는 '목적외 이용'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서울 ADEX 2011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행사기간 내내 고난도 비행으로 관람객을 열광하게 할 것이다. T-50으로 구성된 블랙이글스 8대가 남해안 상공에서 특수비행을 하고 있다.

첨단무기 · 항공기 경연… "날 보러 와요"

'서울 ADEX 2011' 18일 서울공항서… 26일엔 벡스코서 'Naval & Defence 201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1)'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성남 서울공항에서 막이 오른다. 이와 함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 및 방산 종합전시회인 '국제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Naval & Defence 2011)'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이번 서울 ADEX 2011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육군과 공군의 첨단무기와 항공기, 미군의 글로벌호크와 U-2 정찰기 등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각종 볼거리가 넘쳐나는 행사로 진행된다.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10월 23일까지 열리며, 21일까지는 '비즈니스 데이'로 사전등록된 업체와 군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 일반인은 '퍼블릭 데이'인 22~23일에 관람할 수 있다.

이번 ADEX 2011에는 2009년 행사보다 10퍼센트 정도 늘어난 30개국 3백1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한다. 특히 FX(차세대전투기) 3차 사업에 참여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들이 우리 공군을 상대로 치열한 판촉활동을 펼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서울 ADEX 2011'은 과거 공군의 '서울에어쇼'와 육군의 지상무기 전시회인 '디펜스 아시아'를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ADEX 2011'에는 방산수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각국의 국방장관, 참모총장을 비롯해 70여 개국 1천여 명 이상의 VIP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람객도 비즈니스 관계자 3만명을 포함, 내·외국인 25만명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행사 기간 내내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호주곡예비행팀이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또 최신예 기종인 F-15K를 비롯 평소엔 접하기 힘든 미공군 항공기들도 만나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민항기인 '에어버스 380'(A380)을 능가하는 미국 보잉의 차세대 민항기

B787도 국내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많은 항공팬을 설레게 하고 있다.

T-50 탑승할 행운의 '국민조종사'

19세 이상 남녀 4인 선발 국산항공기 직접 체험

공군은 이번 ADEX 2011에 보유한 거의 모든 항공기 기종을 동원한다. F-15K를 비롯, 주력기인 KF-16과 '노장' F-4E, RF-4C, F-5E도 전시와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또 C-130H, CN-235와 함께 해군의 P-3C도 전시하고, 국산 KT-1 훈련기와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도 함께 전시한다.

공군은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3기 국민조종사 선발 행사를 개최한다. 최종선발된 19세 이상 남녀 4명은 '서울 ADEX 2011' 기간에 T-50 고등훈련기와 KA-1 항공기에 탑승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명품 K시리즈 무기로 무장한 육군

국내 개발 기동헬기 '수리온'도 나들이

서울 ADEX 2011에서는 각종 방산물자와 지상무기 전시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최신형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 K200A1장갑차가 실내전시장에서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기갑부대의 주력인 K1A1 전차와 K-9 자주포(실외전시), K-10 탄약보급차량 등도 전시에 참가한다.

육군은 주력 작전헬기인 AH-1S(코브라)와 수송헬기 CH-47(시누크)도 전시한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전시회 나들이를 하며, 해외 10여 개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K-11 복합소총도 선보인다.

글로벌호크와 U-2 정찰기도 등장

한·미 양국 공군 주력기들 나란히 전시

비슷한 무기를 많이 운용하는 양국인 만큼 비교를 하며 관람하는 것도 포인트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멀리 주일미군 소속 F-15C 전투기가 날아와 전시되고 있다. 공군의 F-15K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공군의 C-130H와 이를 개량한 미공군 소속 C-130J도 나란히 전시되고 있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도 한·미 양국 모두 전시하고 있어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항공기들도 15대나 동원된다. 최근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공중급



서울 ADEX 2011에는 이른바 'K계열'의 국산 명품무기들이 총출동한다. 사진은 세계 정상급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유 훈련을 실시한 미공군 KC-135도 참가한다. C-17 수송기 역시 전시와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평소엔 보기 힘든 U-2 정찰기(비행), 1960년 첫 비행을 한 B-52H 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AWACS), '전차 킬러'인 A-10 지상공격기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반도에 배치되기 시작한 AH-64D 블록2도 전시와 함께 비행을 예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II'와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 중인 'RQ-4 글로벌호크(mock-up)'도 전시된다.

'드림라이너' 보잉 B787 아시아 첫선

加 봄바르디아 비즈니스 제트기도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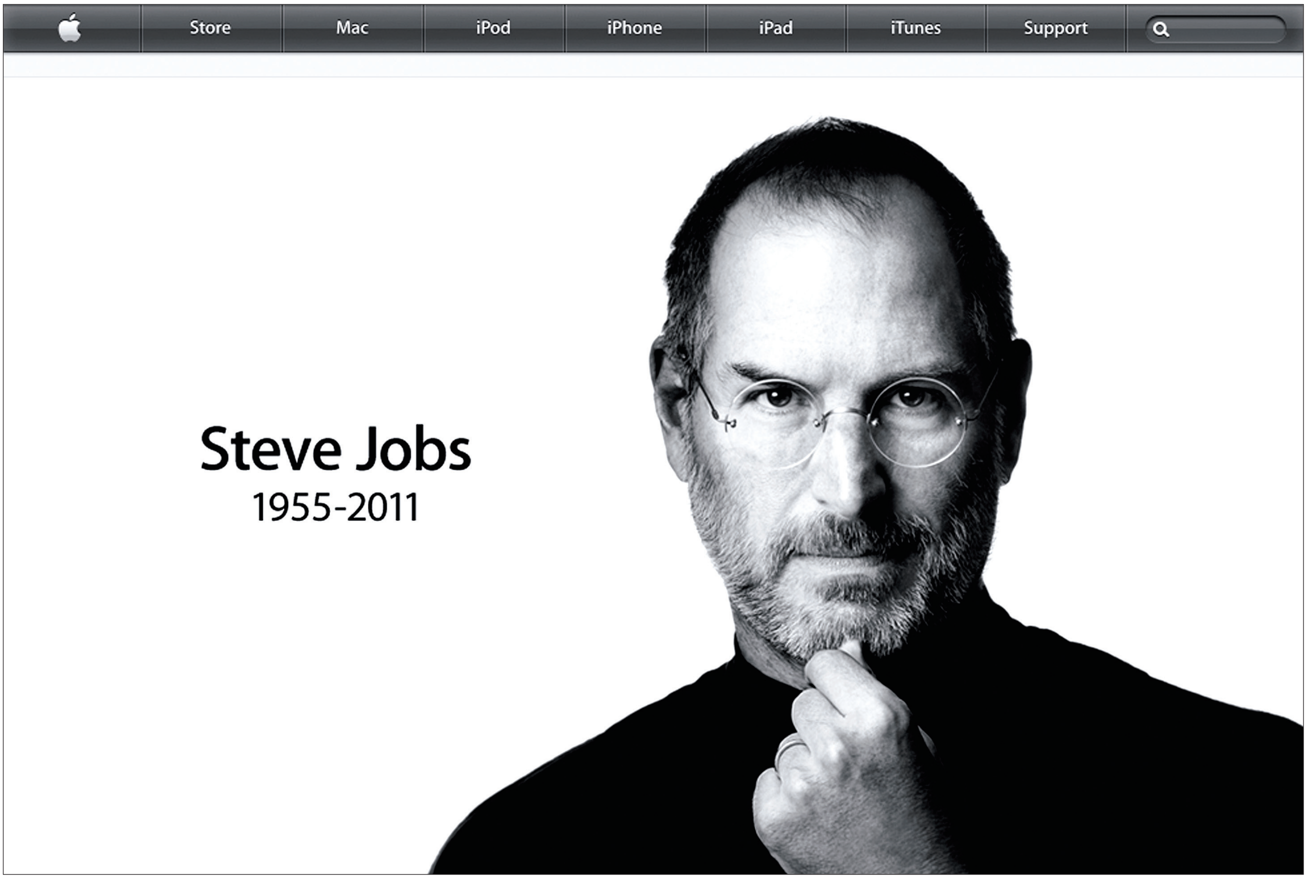
격년제로 개최되는 서울 ADEX 2011은 민항기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주인공은 단연 미국 보잉의 차세대 민항기 B787이다. '꿈의 여객기'란 뜻의 드림라이너(Dreamliner)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B787은 세계 양대 에어쇼인 판보르에어쇼와 파리에어쇼에 참가한 바 있고, 아시아에서는 첫 참가다.

이 밖에도 서울 ADEX 2011에는 B787 외에 미 걸프스트림의 G550, 캐나다 봄바르디아의 글로벌익스트림 등 비즈니스 제트기를 비롯해 80여 종의 항공기와 방위산업 장비가 전시된다.

한편, 서울 ADEX 2011과 같은 기간에 '국제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세계 20여 개국, 200여 개의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며, 함정기술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국방부 통합방산전시회지원단 양철환 단장은 "서울 ADEX 2011은 방위산업의 국가 신성장동력화를 꽃피우는 자리로 항공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경연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G

글·오동룡 기자



Apple.com

전세계가 '예지자',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사진은 애플 홈페이지에 오른 추모 이미지.

"i Sad, i Sad"… '혁신의 아이콘' 떠나다

거인이 스러졌다. 세계 IT업계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세상을 떠났다. '혁신의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애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가 걸어온 길은 현대 IT업계의 발자취 그 자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예지자를 잃었다"며 비통해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i Sad, i Sad', 스티브 잡스의 영면을 기원한다.

▢ 지난 10월 5일(미국 현지시각) 구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스티브 잡스의 타계를 애도하는 문구를 올렸다.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인 구글마저 잡스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

전세계가 잡스의 죽음에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혁신 그 자체였고, 사람들은 잡스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환호했고 행복해했다. 그는 세상을 바꾼 혁신의 전설이었다.

❶ 혁신적인 제품의 창안자

잡스는 타고난 발명가였다. 그의 작품은 세상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했다. 두 번의 안타보다 한 번의 홈런을 사랑한 잡스였다. 최초의 개인용 PC인 애플II, 빌 게이츠에게 윈도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매킨토시 컴퓨터, 세계 MP3플레이어 업계를 단숨에 석권한 '아이팟', 스마트폰 시장의 기린아인 '아이폰', 태블릿PC 시장의 절대강자인 '아이패드' 등 잡스의 창조물들은 모두 기존 시장의 관

행을 산산이 깨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건설했다.

잡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풍부한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다. 헝가리의 철학자 아서 캐슬러는 잡스의 상상력을 '이연현상'이라는 말로 정리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잡스가 펼친 혁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❷ 21세기 기업가정신의 모델

기업가정신 이론을 창안한 경제학자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기업가의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CEO로서 잡스의 삶은 슘페터의 이론을 여실히 증명한 여정이었다.

2001년 아이팟으로 돌아왔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경제는 닷컴버블이 붕괴되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때 잡스가 들고 나온 아이팟은 위기의 미국경제에 희망을 던졌다. 혁신적인 기업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아이팟은 MP3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 기업을 단숨에 제압하며 IT기술 최선진국인 미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잡스의 기업가정신은 수많은 중소기업에도 희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가 창안한 혁신적인 제품들은 새로운 부품을 요구했다. 한국과 대만, 일본의 부품 중소기업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의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잡스의 기업가정신이 전세계로 번져 나간 셈이다.

❸ 새로운 질서의 개척자

잡스는 IT업계의 질서를 뒤집은 정복자로도 통한다. 스마트폰업계의 선두주자인 '아이폰'을 통해 세계 이동통신업계의 관행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아이폰이 출시될 무렵 이동통신업계의 지배자는 통신사였다. 단말기회사나 소프트웨어회사는 이동통신사의 입김 아래 있었다.

잡스는 기존의 질서가 마땅치 않았다. 그는 통신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위 업체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원군들을 불러들였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였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불리는 '앱스토어'를 통해서였다.

소비자들도 잡스의 꿈에 동조했다. 터치 중심의 손쉬운 인터페이스, 새로운 음원과 소프트웨어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에 소비자들은 매료됐다. 잡스의 창조물과 함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고 소비자들은 그의 '추종자'가 돼 애플을 열광적으로 응원했다. 생산자 중심의 오만한 문화를 파괴하고 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창조한 것이다. G

글·변형주 기자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마세요"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 '잡스 어록'

"대학시절엔 당시의 경험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10년이 지나 돌아보니 분명하게 보이더군요. 여러분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경험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용기, 운명, 삶, 인연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제 삶의 모든 특별함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유일한 것은 제가 제 일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연인을 찾듯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 일은 삶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안주하지 마시고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그마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잃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 연표

- 1955년 대학원에 다니던 미혼모인 그의 생모는 생후 1주일 만에 잡스를 입양 보냈다.
- 1972년 17세에 입학한 리드대학을 6개월 만에 중퇴.
- 1976년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컴퓨터 창업하고 같은 해 최초의 개인용 PC인 애플I 출시.
- 1984년 매킨토시 발표. 마우스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 1985년 애플에서 해고. 실적부진이 이유.
- 1986년 소프트웨어 기업인 '넥스트' 창업.
- 1997년 애플로 복귀. 넥스트가 애플에 인수되면서 잡스도 애플로 돌아온다. 그해 7월에 CEO에 복귀.
- 1998년 아이맥 발표. 아이맥은 본체와 모니터가 붙은 컴퓨터로 80만대가 판매되는 히트를 기록.
- 2001년 아이팟 발표. 동그란 휠로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단숨에 석권.
- 2003년 췌장암 진단.
- 2007년 아이폰 발표. 잡스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앱스토어 등을 내세워 스마트폰 시장을 빠르게 장악.
- 2009년 간이식 수술 후 복귀해 9월에 아이팟 신제품을 공개.
- 2010년 아이패드는 태블릿PC 붐을 일으키며 날개 돋친듯이 팔렸다. 출시 1주일 만에 50만대가 판매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IBM을 앞질렀다.
- 2011년 2월에 병가를 낸 후 8월에 CEO를 사임했다. 그리고 10월 5일 향년 56세로 사망.

‘영암의 명성’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질주

지난해 불편 지적사항 완벽히 개선… 관람티켓 완판 초읽기

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과 함께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포뮬러 원(F1)’ 한국대회가 오는 14일 영암에서 개막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치러지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지난해보다 나은 재미와 운영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더불어 성공적인 ‘스포츠 빅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극대화하는 노력도 이어진다.

코리아 그랑프리를 처음 개최한 지난해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회가 임박한 10월 4일에서야 FIA로부터 최종 검수를 받아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없었다. 여기에 교통, 주차, 숙박문제까지 미흡함을 드러내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F1 조직위원회는 작년의 경험을 거울 삼아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해는 F1 첫해라서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해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KTX는 늘리고 우등고속·항공노선은 새로 만들어

우선 수도권과 접근성이 열악했던 교통문제를 개선했다. KTX를 비롯해 고속버스, 항공편 등 육해공을 총망라해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한다. KTX는 결승전이 열리는 16일 오전 중 용산역~목포역 구간을 기존 3편에서 4편으로 증편 운행하고 역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버스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는 15~16일 양일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F1 경주장까지 바로 오는 우등고속버스를 운행한다. 항공편 또한 김포공항에서 영암과 가장 가까운 무안공항까지 오가는 노선을 하루 1~2편 편성했다.

자가용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영산강하굿둑 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국도2호선(죽림JC~서호IC)과 국지도49호선(영암IC~P3주차장)을 임시개통하고 대불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객선을 이용한 해상 수송도 준비하고 있다.

숙박 문제도 대폭 해결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는 영암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1시간 내지 1시간30분 이내의 거리에 4만2천5백52실의 객실을 확보했다. 숙박의 형태도 한옥호텔을 비롯해 캠핑장, 템플스테이, 홈스테이, 관광호텔 및 모텔 등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영암에 새로 문을 연 한옥호텔 ‘영산재’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가정형 체험시설인 홈스테이도 1백 가구로 확대했다.

박종문 F1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과 같은 3일간 20만명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다”며 “대회기간 수요대비 1백20퍼센트 정도의 숙박 시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가장 아쉬운 점이었던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하고, 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입장절차 간소화, 돌발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객들로부터 제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서비스 부문도 통역, 교통·자동차 렌트 안내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한편, F1 인증업소에 대해 주기적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기 문의 활발… 해외관광객 모집에 탄력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영암을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 나갈 구상도 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독일의 벤츠가 오래전부터 F1 팀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이 자동차 엔진 등 부품 발달로 이어졌다”며 영암 또한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기대를





KAVO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 한국대회가 임박했다. 올해는 지난 대회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보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영암대회 결승전 모습.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F1 대회에 관광공사 25개 해외지사망을 통한 관광객 모객활동, 유로스포츠 한국 F1 특집 4회 방영 등 해외언론을 통한 해외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 결과 최근 방콕, 홍콩, 광저우 등의 전세기 6편, 일본JR규슈 고속선 1편, 일본 미에현, 오사카 등의 특별관광열차 2편 등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 전세편 문의가 활발해지는 등 해외 관광객 모집에 탄력이 붙고 있다.

박종문 사무총장은 "현재 유럽과 미주 4천명, 중화권 2천5백명 일본 2천명, 기타 1천5백명 등 '해외 관광객 1만명 유치'란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기간 중 한류 아이돌 스타가 총출동하는 전야제 콘서트 개최와 다양한 한국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연계 관광과 숙박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해외 언론사들의 관심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레이싱 전문지 'F1 도큐슈'를 비롯해 중국방송사에선 '한국인상'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9월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영암 경기장과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달까지 한국DDGT, 티빙슈퍼레이스, 넥센RV챔피언십 등의 각종 레이싱대회를 개최하고, CF·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경기장 임대사업을 통해 영암 그랑프리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런 관심이 이어지면서 코리아 그랑프리 관람티켓은 완판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대구 국제육상대회가 끝난 만큼 이제는 영암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영암 F1 대회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아시아권 선수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모터사이클 대회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틀 스폰서 아직 없어… 국내 기업 유치 시급

세계적인 이벤트 개최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외국에서 치러지는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대부분은 타이틀 스폰서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스위스 금융그룹, 호주는 콴타스 항공, 싱가포르는 관청주도, 인도는 에어텔,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 국영기업이 스폰서를 맡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타이틀 스폰서가 없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영암 서킷에 광고를 건 기업은 글로벌 스폰서로 참여해 20개 대회에 모두 광고를 하는 LG가 유일하다. F1 대회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 없는 시장'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F1 대회는 국가 위상도 제고는 물론,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F1 대회가 정착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G

글·손수원 기자





지난해 열린 코리아 그랑프리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가 치러져 색다른 재미를 주었다. 오는 14~16일에도 최고의 F1 스타들이 총출동해 영암의 서킷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아이돌 스타도 영암에… 눈과 귀가 즐겁다

F1 티켓은 문화 자유이용권… 광주·전남지역 박물관 등 할인·무료입장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우승을 거머쥐기 위한 F1 스타들의 불꽃 튀는 대결은 이번 대회에도 이어진다. 영암을 찾은 여행객들을 위해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곳곳에서 대기 중이다.

올해 F1 코리아 GP의 최대 관심사는 제바스티안 페텔(23·독일·레드불)과 페르난도 알론소(31·스페인·페라리)의 재대결이다. 페텔은 사실상 올 시즌 종합 우승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지난해 영암에서 알론소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결승전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장 안팎에도 보고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15일에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FT아일랜드 등 한류를 이끄는 인기 아이돌그룹이 총출동해 전야제 콘서트를 연다. 또한 무료 관광투어버스와 관광지 관람료 할인·무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일 1차례 40명 선착순 모집 무료관광투어

조직위원회는 F1 티켓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늘렸다. 전야제 콘서트 무료관람은 물론, 이달 23일까지를 '광주·전남 방문주간'으로 정해 F1 입장권을 제시하면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무안 생태갯벌공원, 영암 도기문화센터,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등의 여행지에서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남도내 27개 골프장에서도 10월 한 달간 그린피와 골프텔 이용료 등을 2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다.

대회 기간 동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도 운행한다. 14~16일 오전 10시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무료버스를 타면 영암F1 경기장, 도기박물관,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 기찬장터 등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다. 목적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재미있는 설명을 곁들여 지루하지 않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점심시간에 들르는 독천낙지거리에서는 갈낙탕, 낙지호롱 등의 별미를 맛본다.

무료버스는 3일간 매일 한 차례 운행하며, 참가신청은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010-2618-8212)에게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모집.

알파벳으로 본 관전 포인트

Ace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제바스티안 페텔이다. 올 시즌 14차례의 경기 중 9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최연소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예약한 페텔은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2·독일·메르세데스)가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은 사나이다.

Best F1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페르난도 알론소의 몸값은 3천만 유로(약 4백79억원)이다. 이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1천2백만 유로(약 1백86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Circuit F1 GP가 열리는 세계 각국의 서킷(경주장)은 제각각의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 GP는 도심의 서킷에서 야간 레이스로 진행됐고, 이탈리아 몬차 서킷은 공원 내에 위치해 숲 속을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가장 큰 특징은 경주로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Machine F1의 경기용 자동차를 머신이라고 부른다. 대당 가격은 1백억원이 넘으며 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최첨단 기술을 압축시켜 놓은 결정판이다.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백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2.4초에 불과하며 최고 시속은 3백50킬로미터에 육박한다.

Speed F1 대회 중 기록된 머신의 최고 속도는 2004년 이탈리아 대회 때 브라질의 안토니오 피조니아가 기록한 시속 3백69.9킬로미터이다.

King 1991년 22세의 나이로 F1에 데뷔한 미하엘 슈마허는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는다. 이제까지 종합우승 7회, 그랑프리 우승 91회의 빛나는 업적을 이룬 그는 2006년 은퇴했다가 지난 시즌 복귀, 영암 GP에서는 4위에 올랐다. G

글·손수원 기자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

한해 20개국서 19라운드 경주로 챔피언 가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의 모터스포츠 이벤트. 한 해 세계 20개국을 순회하며 총 19라운드에 걸쳐 경주 후 라운드별 득점을 합산하여 챔피언을 가린다. 참가팀은 12개 팀이며 팀당 2명씩 모두 24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한다. 오는 14~16일에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 열리는 19개 라운드 중 16번째 경기다.

대회 첫날인 14일에는 연습 주행 2회, 15일에는 연습 주행과 예선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6일 오후 3시에 결선이 열린다. 코리아 그랑프리 티켓은 공식 홈페이지(www.koreangp.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농협, 광주은행에서 대회직전까지 10퍼센트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 경기장



길이 : 5.615km, **코너** : 18개(왼쪽 11개, 오른쪽 7개)

영암에서 펼쳐지는 F1 별들의 전쟁

올 시즌 챔피언 페텔, 알론소와 '복수혈전'

지난해 영암에서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당일 장대비가 내려 알론소의 최대 라이벌인 제바스티안 페텔, 마크 웨버(35·호주·레드불) 등 전체 24명 중 9명이 중도 기권한 가운데 거머쥔 역전 우승이었다.

올해 대회도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순위 싸움이 기대된다. 다만 올 시즌은 페텔이 14차례 레이스 가운데 9승을 독식하면서 올 시즌 종합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그러나 종합우승과 별개로 페텔은 이번 영암 대회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시즌 영암 대회에서 알론소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다짐이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지난 싱가포르 대회에서 4위에 머물면서 2위를 기록한 젠슨 버튼(31·영국·맥라렌)에게 종합 2위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영암에서만큼은 '코리아 GP의 사나이' 타이틀을 지키면서 종합 2위 자리도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GP에서 3위에 오른 마크 웨버와 루이스 해밀턴(26·영국·맥라렌)도 종합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친다.

2011 F1 드라이버 순위 (10월 5일 현재)



이름	제바스티안 페텔	젠슨 버튼	페르난도 알론소	마크 웨버	루이스 해밀턴
국적·팀	독일/레드불	영국/맥라렌	스페인/페라리	호주/레드불	영국/맥라렌
점수	309	185	184	182	168

자료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민주당 유선호 의원 인터뷰

“돈으로 환산 못 할 지역발전의 핵심”

F1 그랑프리대회가 열리는 영암은 유선호(柳宣浩) 의원에게 고향이자 지역구다. 유 의원은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문제 삼아 F1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전남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효과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F1 대회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DB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이 한창인 지난 10월 6일,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F1 그랑프리대회는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면서 “F1 대회가 2016년까지 개최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F1은 영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3선의원인 유 의원은 15대 때 정계에 입문했고, 경기도 정무부지사·청와대 정무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

F1 개최를 통한 고용유발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천3백73억원,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5조8천3백68억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F1이 가져온 영암 지역 발전과 국가 브랜드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F1 대회로 인해 우리 영암이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레저도시에 대한 투자 문의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에 경주장에서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영암·목포권 지역에 외지인이 몰려 식당에는 손님이 붐비고, 숙소 잡기도 쉽지 않은 등 F1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F1은 대회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지역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모터스포츠 연관 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전남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는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총 16만5천명이 관람한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5천명에 불과했습니다. F1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조직위에서는 금년 유럽, 중화권, 동남아 등에서 1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모객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을 ‘남도 방문의 달’로 정하고 여행설명회, 팸투어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과 연계해 맞

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겁니다."

연계 관광 자원 확보도 시급합니다. 영암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 내·외국인이 매력을 느낄 만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남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타슬로(Cittaslow) 국제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청산도와 순천만, 낙안읍성, 월출산국립공원, 영산호 농업박물관 등 빼어난 문화유적이 인근에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흠뻑 빠지게 하는 남도의 멋과 음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만간 F1과 연계된 수준 높은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DB

유선호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010년 10월 영암 F1 경기장을 둘러보며 이윤석 의원(왼쪽 두번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암 F1은 2016년까지 총 7년간 개최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에도 적자가 발생할 경우 내년 개최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 적자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대회 운영기업 카보(KAVO)의 부실에도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회 이후 전라남도가 직접 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주장 관리·운영을 통한 F1 개최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주장 인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가 있었고요, 전남도가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등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F1 사업이 도(道)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1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현재 월드컵,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행사인 F1을 전남도의 재정으로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다수 F1 개최국의 경우에도, 국가 브랜드 제고, 관광·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1의 안정적인 개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현 정부는 F1지원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F1 대회 수지개선을 위해 F1조직위가 수익사업을 직접 할 수 있고,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1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F1조직위의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즌일 때 F1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지연으로 인해 경주장 준공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드라이빙스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Grade 1'을 획득한 국제 수준의 경주장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내외 경주대회 유치, 드라이빙스쿨 개최, 기업과 동호회 임대, 공공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종합레저 공간으로 육성해 F1 경주장을 인근 삼호 및 구성지구 내 골프장 등 대단위 휴양·위락시설과 연계시킬 경우, F1 경기장 집객(集客)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 잠재시장이 2조원에 달하고, 국내 모터스포츠 마니아가 65만명에 이르는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F1 경기장이 명실상부한 국내 자동차 경기의 메카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G

글·오동룡 기자



10월 6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백제보 좌안에서 열린 금강 새물결맞이 백제보 축제 한마당. 김황식 총리가 "잘 가꾸고 유지하여 아름다운 금강과 백제문화를 후손들에게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물이 깨끗해지니 속이 다 시원해유"

김황식 총리 등 2천여 명 참석… 주민들 "무엇보다 깨끗해져 속이 시원"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두번째로 금강 백제보에서 개방행사가 개최됐다. 11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행사를 갖는 16개 보는 수량조절을 위한 커다란 물그릇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곱게 나들이옷을 차려입은 행렬이 찻길로, 뱃길로, 혹은 걸어서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백제보 좌안에서 열린 '금강 새물결맞이 백제보 축제 한마당'에 참석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이다. 한쪽에서는 도시락을 펼쳐놓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고 부여군 등이 후원하는 이날 축제 한마당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승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용우 부여군수, 이석화 청양군수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백제보 좌안 벚꽃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공식행사에서 먼저 축제 한마당 개최를 축하한 뒤 "부여인구 7만7천명의 15퍼센트에 달하는 1만2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지지서명을 통해 보여준 염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꿋꿋한 사명감이 결합되어 대백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벚꽃공원 특설무대서 공식행사 · 축하무대

김 총리는 이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금강이 충청인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 출발


'백마강 수문장' 계백 장군을 형상화한 백제보의 조형물.



백제보 개방을 축하하는 지신밟기.

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합심해 사랑과 애정으로 잘 가꾸고 유지하여 아름다운 금강과 백제문화를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상왕국 대백제, 역사의 물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축제 한마당 공식행사는 충남국악단의 식전공연, 4대강 영상상영, 경과보고, 인사말, 주제공연, 개방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행사 이전에는 소망풍선 날리기, 황포돛배 승선체험, 수상스키·윈드서핑·카누 시연, 백제보 지신밟기, 공도교 걷기, 버블 마술쇼, 풍선아트, 4대강 & 백마강 역사 사진전 등이 사전행사로 열렸다. 공식행사에 이어 태진아, 송대관, 추가열, 블락비, 다비치, 김양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축하음악회가 펼쳐졌다.

축제 한마당이 열린 백제보에는 행사 시작 두어 시간 전부터 완성된 백제보를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백제보와 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짱이네" "고마운 일이여" 등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웃들과 함께 집에서 백제보까지 걸어왔다는 정경남(64·여·부여읍 정동리)씨는 "몇 달 만에 이곳에 나와 보는데, 정말 좋다"며 "무엇보다 깨끗해져서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이날 개방한 백제보는 총길이 3백11미터(가동보 1백20미터, 고정보 1백91미터)에 이르며, 백마강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되살아난 계백 장군(계백위환)을 형상화한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다. 백제보 좌안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연간 4천7백5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천4백6만1천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우안에는 8백20미터의 자연수로형 어도가 설치돼 있다. 또 백제보 위를 지나 금강 북쪽의 청양군을 잇는 공도교는 6백80미터에 이른다.

인양 · 왕흥 · 백제보나루 등 옛 나루터 복원

2009년 10월 착공한 금강6공구 사업은 총사업비 2천8백26억원을 투입해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 일원에 걸쳐 총연장 17.33킬로미터 구간의 금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되살렸다. 백제보 건설 이외에도 생태하천조성 4개소, 자전거도로 21.7킬로미터, 황포돛배 선착장 등이 조성돼 있다. 현재 공정률은 97퍼센트다.

금강살리기 6공구 사업은 착공 초기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하천 내 비닐하우스 경작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인 부여군개발위원회가 주도해 부여주민 1만2천여 명이 금강살리기 사업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수량 조절과 수질개선, 생태 보전 이외에도



백제보 아래 닫힌 가동보.



백제보 공도교 위를 오가는 관람객들.



백제나루에 도착한 황포돛배. 축제 한마당 참석차 승선한 주민들로 만원이다.

부여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나루터가 복원되고 강바닥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백마강의 인기 관광상품인 황토돛배와 부여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이 가능해졌다. 백마강 황포돛배는 그간 강바닥에 가득 쌓인 모래 때문에 운항거리가 고작 구드래나루에서 낙화암까지 8백미터 구간에 불과했으며, 갈수기에는 운항 자체가 불가능했다.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강바닥에 쌓인 모래를 걷어 냄으로써 낙화암에서 끊겼던 뱃길이 백제보 하류 좌안에 위치한 백제보나루까지 약 3.3킬로미터 확대돼 전체 4.1킬로미터로 늘었다.

특히 기존 구드래나루에 더해 인양나루, 왕흥나루, 백제보나루 등 옛 나루터를 복원함으로써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관광객들이 다양한 백마강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백제보 자체도 관광명소로 손색없다. 백제보 좌안에 건립되는 금강문화관, 높이 30미터의 전망타워는 벌써 개방행사를 통해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해 문을 연 부여군 규암면 백제로 백제문화단지에 비치된 대여자전거를 타면 백마강교를 지나 금강자전거길을 따라 백제보까지 약 4킬로미터를 17분 만에 올 수도 있다.

백제보 · 금강문화관 · 전망타워 관광명소로

부여군 택시기사 유민식(52)씨는 “고향 떠난 친구들과 달리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부여가 유적에 묶여 개발이 안 되고, 경주처럼 유적이 볼거리로 정비되지도 못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볼거리가 마련돼 오가는 사람이 늘고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승호 대전국토관리청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백제보를 완공하게 됐다”며 “주민 편의와 활용도를 위해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 · 박경아 기자





현장 식당 조리사 김정태씨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금강 모습에 좋아해요"

"나가서 깨끗해진 금강과 백제보를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요. 주변 사람들도 무척 달라진 금강 모습에 좋아하세요. "

백제보 건설을 담당한 GS건설 금강 6공구 현장사무소 식당 조리사인 김정태(51·충남 논산시 강산동)씨. 백제보 개방 축제에도 앞치마를 두른 그는 떠들썩한 백제보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사무소와 백제보는 약 2백미터 거리에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설날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곤 출근했다.

"저와 다른 두 분이 준비하는 식사량이 하루 평균 약 1백40명분이에요. 현장 근무자들이 이곳 숙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김씨는 매일 새벽 4시반 논산에 있는 집에서 30분 정도 차를 운전해 출근하면 오후 8시 넘어 퇴근하는 강행군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나마 아이들이 다 자라서 다행이었어요. 딸은 외지에서 직장에 다니고, 아들은 대학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장사무소 식당에서 하는 일은 식사 준비만이 아니다. 여름에는 현장 작업자들이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각얼음을 채운 찬 얼음통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숭늉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김씨는 자신의 남편도 건설 관련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 왔다.

"우리 식당 창에서 백제보 전망대가 내다보여요. 매일 식사준비를 할 때마다 바라만 봤는데, 이젠 한번 올라가 봐야죠."

조병훈 현장소장

"지난 2년간 설날·추석에만 서울 집에 들러"

"죽어 가던 사람 하나 살린 기분입니다. 제가 치운 생활쓰레기가 4천5백톤이 넘습니다."

금강살리기 6공구을 맡고 있는 GS건설 조병훈(51) 현장소장이 백제보 전망대 아래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까맣게 탄 얼굴, 행사를 위해 모처럼 양복을 입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힘들었던 점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조 소장은 금강살리기 6공구 착공일인 2009년 9월 23일부터 이곳 현장을 지켜 왔다. 라오스에서 댐 공사 등 수자원개발 현장을 경험하고 수자원개발 기술자 자격증도 보유한 조 소장은 이번 현장이야말로 그가 아는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하는 곳이었다고 했다.

공사 현장 밖에서도 바빴다.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각종 설명회, 환경단체와의 대화 등도 이곳 현장사무소의 역할이었다.

게다가 부여군은 문화유적이 많은 지역이다. 공사 진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환경단체가 청양군의 공사구간 안에 있는 맹꽁이 서식처를 발견했다고 한다.

"공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게 우리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서식지를 그대로 보전하고 주변 지역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의 집에 가 본 것이 설날과 추석연휴뿐이었다는 조 소장은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며 웃었다. "이제 마누라에게 뭐라고 변명하며 집에 들어갈지가 걱정입니다. 아들 둘이 다 자라 적적하게 지냈거든요." 조 소장의 차남은 올해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에 입단한 조남기 선수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세종보 놀랍다… 魚道는 창의적 아이디어"

국제 생태조경 전문가 스티븐 드라운 美 교수 금강 둔치 방문

"'생태복원'이 키워드인 것 같다. 놀랍다."

금강 백제보가 지난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난 10월 6일. 국제 생태조경 전문가인 아이다호주립대 스티븐 드라운(63) 교수는 금강 둔치를 둘러본 후 소감을 이 한마디로 압축했다.

드라운 교수는 현재 건축공학대학에서 조경환경 프로그램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35년간 생태와 건축, 삼림과학 분야에서 강의를 해왔다. 비영리 도시발전 재단인 컬러 콜럼버스(Colour Columbus)의 창립 위원이자 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와 협력하에 지속 가능한 생태 공간 조성에 기여해 국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매경DB



국제 생태조경전문가 美 스티븐 드라운 교수가 백제보 등을 둘러봤다. 드라운 교수는 "물을 순환시키려고 한 노력이 곳곳에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 들른 곳은 금강과 맞닿은 세종시 첫 마을에 바로 인접한 세종보. 세종보는 총연장 3백48미터(고정보 1백25미터·가동보 2백23미터)에 높이 2.8~4미터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발전용량 2천310킬로와트(7백70킬로와트 3기)의 소수력발전소와 물고기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연형 어도를 갖춘 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물을 순환시키려고 한 노력이 곳곳에 보여요. 절대 물이 썩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같은 그의 말은 지금까지 "보를 만들면 물 순환이 어려워 물이 썩고 수질이 나빠진다"는 4대강 반대론자들의 말을 뒤집는 것이다.

"물 순환 노력 보여… 절대 물 썩는 일 없을 것"

세종보에는 퇴적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면정화시설(폭기장치)로 고인 물의 순환을 유도하는 장치가 있다. 드라운 교수는 "보가 너무 높으면 개방 시에 유량이 넘쳐서 하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높이가 '딱' 좋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보와 금강유역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규모, 기술력, 창의적 디자인,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드라운 교수가 사는 오하이오주 인근 콜럼버스강에선 지난 1950~1960년 대규모 댐을 개발한 이후 시설이 노후하고 일부 어종이 바다로 나가지 못해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일부 댐을 철거하는 등 대규모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애초 콜럼버스강 유역 댐들에 이런 기술을 적용했다면 지금 다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일 따윈 없었을 것"이라며 "세종보 내 '어도'의 경우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방법을 보여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 주변 산책로를 가리키며 "수변공간으로 인간을 초대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에게 "아직도 4대강과 준설에 대해 환경파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드라운 교수는 "인간과 자연을 왜 자꾸 별개로 생각하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결국 자연도 이로울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준설과 수변 개발은 인간의 일방적 개발이 아니라 홍수 피해나 담수능력 확보를 통해 자연생태를 인간이 보다 잘 활용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간과 자연의 '협업(Collaboration)'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G

글·이지용 (매일경제 건설부동산부 기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출산 육아 정책에도 마음을 더했대요!



SBS 아나운서
박찬민과 세 자녀(민진,민서,민하)

마 더 하세요
마음을 더하세요

2015 새로마지 플랜

1.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모든 임산부 대상 산전진찰 비용 지원 (고운맘카드, 1인당 40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4회까지, 회당 180만원,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 내)

2.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임신 전후, 수유 중 안전한 약물복용,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한국마더세이프 (www.mothersafe.or.kr, ☎1588–7309) 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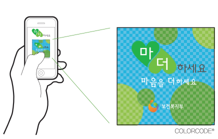
3. 영유아 돌봄 및 교육 지원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소득하위 50% → 70%)
모든 만 5세 어린이 대상 누리과정 제공 ('12. 3월 시행 예정, 보육 · 교육비 월 20만원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이하 가구, 월 10~20만원)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희망 시, 연 480시간 이내, 일부 본인 부담)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 돌봄비용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일부 본인 부담)

4.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최저 50만 ~ 최고 1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급여 지원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대상)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 제외 후 합산)

5.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미성년 자녀를 3인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 대상)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인정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8개월, 최장 50개월 내, '08.1.1 이후 출생자)

6.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천 → 3천만원)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3천 → 3천 5백만원)
공공 · 민영 · 국민임대주택 특별 공급 (결혼 5년 이내 임신 혹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7.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현역병 복무 중 자녀 출산 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가능 ('11.11.25. 시행)



COLORCODE® POP 앱을 다운받아 찍어보세요

[모바일 웹에서 진행 중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마음도 더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환경부

greencard

그린카드란?
신용카드의 기능과 함께,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정부 · 지자체 ·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린을 꺼내세요

당신의 녹색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그린카드는 녹색생활 실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포인트 지급

녹색소비
환경마크 · 탄소라벨링제품 구매 시 포인트 지급

공공부문할인
휴양림 무료입장, 국립공원할인, 공연할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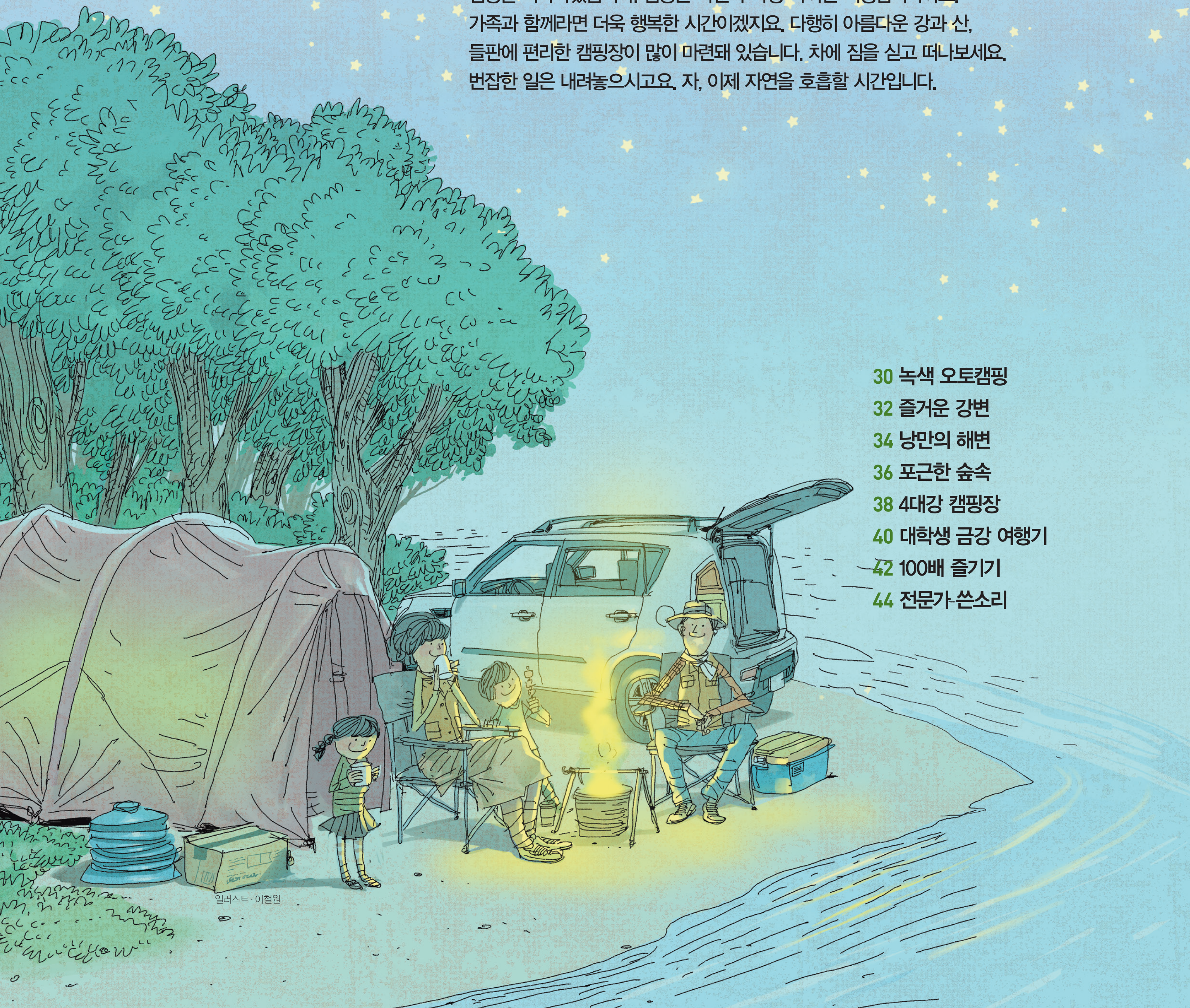
신용카드의 기능
대중교통 이용특화 100~200 포인트 적립

그린카드 신청
'11년 7월 중순부터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BC카드(우리은행, 하나SK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B국민카드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카드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 획 특 집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가족과 떠나는 오토캠핑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별빛은 더욱 청아합니다.
숲의 숨소리는 속삭이듯 나지막해집니다.
자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대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계절입니다.
캠핑을 떠나야겠습니다. 캠핑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여행법이니까요.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행복한 시간이겠지요. 다행히 아름다운 강과 산,
들판에 편리한 캠핑장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떠나보세요.
번잡한 일은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자연을 호흡할 시간입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소득이 늘고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오토캠핑 인구가 늘고 있다. 오토캠핑은 관광산업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오토캠핑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가평의 유명산 자연휴양림.

"자연이 우리 별장"… 선진국형 레저 '성큼'

편의시설·접근성 좋아지자 지난해 58만여명 국민여가캠핑장 다녀가

오토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곳은 예약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파가 몰린다. 자연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오토캠핑의 매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오토캠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여가문화가 풍족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은영씨에게 캠핑은 '불편함'의 동의어였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땅바닥에 누워 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졌다. 샤워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지레짐작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특히 화장실을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했다. 지저분한 공중화장실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씨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마전 여행을 다녀온 곳에서 캠핑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난 후의 변화였다.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텐트는 충분히 널찍해 답답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취사도구는 낯설어 보였지만 불편하기보다 흥미롭게 다가왔다. 내친 김에 둘러본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은 깨끗했다.

특히 정씨의 마음을 흔든 것은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몇 가구가 함께 왔는지 예닐곱 명의 아이가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별스런 장난감이나 놀이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솔

허재성 기자


김승완 기자
오토캠핑의 매력은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수

	2008년(8개소)	2009년(9개소)	2010년(14개소)
경기 가평군	5,293	23,832	33,184
경기 연천군	286,392	392,403	417,000
강원 동해시	84,064	90,074	88,490
강원 고성군	7,124	13,448	17,104
충북 단양군	6,456	11,125	11,145
전남 곡성군	7,000	9,000	22,829
전남 해남군	2,456	13,744	17,868
경북 문경시	3,643	9,025	10,515
계	402,428	570,041	583,2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울과 나뭇가지, 흙과 물, 나무와 풀이 전부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놀이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됐다. '캠핑을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오토캠핑 인구가 부쩍 늘고 있다. '국민여가캠핑장'의 이용객 수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40만명 가량이던 이용객이 2009년엔 57만명으로 4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8만3천여명이 국민여가캠핑장을 다녀갔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캠핑장이다.

TV·게임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놀이 즐겨

오토캠핑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자연에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캠핑 자체의 강점에 자동차를 이용한 편리함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과거 캠핑은 불편한 것이 분명했다. 장비라고는 텐트와 버너, 코펠이 고작이었다. 모든 짐을 배낭에 넣고 직접 지고 다녀야 하니 장비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었다.

잠자리가 불편한 것은 당연했다. 지면이 고르지 않아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편의시설도 열악했다. 화장실은 지저분했고 세면장의 물은 4계절 내내 찬물만 나왔다.

최근의 캠핑장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화장실과 세면장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캠핑장비들도 엄청나게 다양화하고 기능이 향상돼 집에서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다. 가지고 다녀야 할 장비가 많아졌지만 과거와 달리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으니 부담도 적다. 자동차 바로 옆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으니 들고 다닐 일이 없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족과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TV와 컴퓨터에서 떨어져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긴 시간 대화를 한다. 이외에 달리 할 일도 없다. 가족의 화목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속에 한층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오토캠핑의 매력이다.

오토캠핑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여행 방식이다.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 속에 한걸음 더 다가가 위안을 찾는 것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다만 자동차문화가 활성화돼야 하고 장비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오토캠핑 문화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활성화돼 흔히 '선진국형 레저'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도 2천년대 들어서야 오토캠핑 문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주5일제 시행도 오토캠핑 활성화의 이유로 꼽힌다.

2015년 이후엔 도마다 10곳씩 캠핑장 조성

정부도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해 오토캠핑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된 오토캠핑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이다. 국내여행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은 16곳이고 21곳이 공사중에 있다(2011년 5월 기준). 비교적 넓은 부지에 화장실과 샤워실,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6곳, 내년에 3곳 등 신규 캠핑장도 점차 늘려 갈 계획이다. 2015년 이후엔 한 도에 10곳씩 80곳의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물도 좋고 산도 좋아라"… 강변의 추억

전국에 20여곳… 취향따라 즐기는 숲과 단풍·테마파크·식도락

강으로 가는 오토캠핑은 산과 숲, 그리고 테마파크와 식도락과 단풍이 기다린다. 전국 자치단체 등이 경쟁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전국의 오토캠핑장도 3백여 개로 늘었다. 오토캠핑 사이트인 '오토캠핑(www.autocamping.co.kr)' 등에 따르면 강을 낀 오토 캠핑장은 20여 곳에 달한다. 네이버 카페 '초보캠핑(cafe.naver.com/campingfirst)'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읽어 보고 장소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 연천

한탄강 오토캠핑장
수도권의 메카… 자전거·인라인도 즐겨

경기도 연천군을 유명하게 만들어 준 '국민 캠핑장'이다. 수도권 오토캠핑의 메카로 불린다. 3번 국도를 따라가다 한탄대교 앞에서 우회전하면 한탄강이 시원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국도변에 '한반도 중심, 구석기 나라 연천'이라는 연천군 슬로건이 보이지만, 연천은 한탄강 오토캠핑장으로 더 유명해진 느낌이다. 야영장은 카라반 49대, 자동차 8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탄강 오토캠핑장의 장점은 한탄강을 바로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도 눈에 띄고, 오리배를 탈 수도 있다(30분 1만원). 겨울에도 주말에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반면, 주중은 대체로 한산하다.

취사장,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완벽하지만 물놀이와 낚시하기 좋은 한탄강, 전곡리 선사유적지, 한탄강 교통랜드가 한자리에 몰려 있는 등 주변환경도 뛰어나다.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캠핑장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있다.

강원 영월

리버힐즈 오토캠핑장
'서만이강'에 위치… "금강산 안부러워"

영월 리버힐즈는 영월군 수주면에 있는 오토캠핑장이다. 이곳은 남



조선DB

경기도 연천군은 한탄강 유원지를 2007년부터 2년간 1백99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고정식 카라반 49대와 승용차 86대가 머물며 캠핑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하이라이트다.

한강 상류인 서강에 물을 보태는 서만이강이 흘러간다. 서만이강은 가이산을 감싸고 돌아 마치 섬처럼 만들어졌다고 해서 '섬안의 강'이라 불렀던 곳이다.

풍경이 아름다워 현지인들은 금강산이 부럽지 않다고들 자랑한다. 특히, 여름철은 낚시와 천렵, 물놀이도 할 수 있어 피서캠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기 가평

자라섬 오토캠핑장

선진국 수준 캠핑시설… 모든 테마와 접목


조선DB

강원도 망상, 경기도 한탄강과 함께 국내 3대 오토캠핑장으로 불린다. 2008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열렸던 곳, 선진국 수준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규모가 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도 넉넉하다. 캠핑장은 텐트와 카라반, 모빌홈(이동식 주택) 등 캠핑의 모든 테마를 접목했다. 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대여점, 농구장, 낚시터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남 곡성

섬진강 오토캠핑장

강변 너른 터엔 솔숲과 참나무숲 절반씩


조선DB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이 도란도란 흘러가는 강변에 위치해 있다. 칙칙폭폭 열차와 캠핑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캠핑장이 자리한 곳은 강줄기가 휘감아 돌아가는 강변, 너른 터에 솔숲과 참나무숲이 절반씩 자라고 있다. 보성강은 쏘가리와 은어, 꺽지 등이 많이 산다. 동리산 태안사와 압록 유원지, 곡성 기차마을도 오토캠핑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전라선이 직선화하면서 옛 곡성역은 1999년 기능을 잃고 '테마공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섬진강에서 바라본 10킬로미터 구간의 철길을 우리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길 중 하나로 꼽았다.

강원 평창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해발 7백미터 계곡 따라 수려한 경관 자랑

평창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은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자연미 넘치는 캠핑장이다. 최근 평창군에서 용평면 노동리 일원 2만9천여제곱미터를 캠핑장으로 조성, 2010년 개장했다. 숙박시설 3개동, 캠핑장 81개면, 다목적운동장 1면, 화장실 급수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81개는 일반 승용차량과 승합차, 캠핑차량을 주차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숙박시설은 캐빈 2동과 통나무집 1동으로 1동당 최대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캠핑장은 해발 7백미터의 고지대에 있어 여름에 서늘할 뿐 아니라 옆에는 노동계곡이 흘러 경관이 수려한 것이 장점이다. 연중 운영되는 이 캠핑장은 노동리 마을에서 위탁 관리한다. G

글·오동룡 기자

강변 오토캠핑장

캠핑장 이름	위치	이용료(1박 기준)	예약 및 문의
한탄강 오토캠핑장	경기 연천군 연천읍 전곡리 640	평일 1만원, 주중 2만원, 카라반 3만~10만원 연중(예약제)	031-833-0030 www.hantan.co.kr 연중(예약제)
자라섬 오토캠핑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	캠핑장 1만원, 카라반 사이트 평일 1만5천원, 주말 2만원	031-580-2500 www.jarasum.gp.go.kr 연중(예약제)
리버힐즈 오토캠핑장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169	2만원(성수기 3만원, 연박 5천원 할인)	033-374-7900 www.riverhills.kr 연중(예약제)
섬진강 오토캠핑장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389	1만5천원, 전기료 5천원, 유료낚시 1만원	061-362-8466 연중(선착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27-1	1만원, 카라반 사이트 3만원	010-6225-4250 연중(선착순)
임진강 폭포어장	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1만5천원(연박 1만원), 전기료 3천원	031-959-2222 http://blog.naver.com/inno0316 연중(예약제)
남강캠프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89-4	2만원(성수기 3만원), 전기료 3천원	033-375-1006 연중(선착순)
별마로빌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536	2만원, 전기료 5천원	010-3008-6408 www.starmaro.com 연중(성수기 예약제, 비수기 선착순)
두룬산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69	2만원, 전기료 5천원	033-334-0920 연중(예약제)
살둔캠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2리 183	1만5천원, 텐트대여 2만5천원	033-434-3798 http://saldun.invil.org
적벽강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700	1만원, 전기료 5천원	041-753-3203 연중(선착순)
산내들	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19	2만원 (연박 1만5천원), 전기료 3천원	010-5125-7800 http://realks.com
하동송림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1천원, 야영료무료	055-880-2761 연중(선착순)

※이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해시청

바다와 맞닿아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국내 최초의 오토캠핑장이다. 카라반 캠핑도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오붓한 대화… 정겨운 파도소리

놀이시설·공동취사장 등 편리… 제철 해산물 먹거리도 풍성

해 질 녘이면 곳곳에서 밥 짓는 냄새가 요란하다. 어른들은 공동취사장에서 쌀을 씻고, 아이들은 나뭇가지, 열매 등을 줍거나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며 공동의 놀이터에서 논다. 식사를 하며 둘러앉은 가족의 이야기는 이따금 파도 소리에 밟히기도 하지만 쌀쌀한 가을밤 바닷가에서의 캠핑 풍경은 훈훈하기만 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몰을 감상하고, 고깃배의 불빛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바다 캠핑'은 그래서 낭만적이다.

강원 동해 |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국제기준 전용사이트 10곳… 해변 산책로 인기

동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국내 최초의 오토캠핑장이면서 바닷가 오토캠핑의 시작을 알린 곳이다. 국제적 기준에 의한 자동차 전용 캠프 사이트가 10곳 조성돼 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시설과 공동취사장, 공동샤워장 등이 가까이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오토캠핑 사이트 외에도 카라반과 숙박시설인 캐빈하우스, 아메리칸코티지 등이 함께 조성돼 있다. 그중 '붙박이 캠핑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식 카라반은 주말과 성수기 예약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카라반과 함께 피크닉테이블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끼리 단란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장 앞으로는 망상해수욕장이 펼쳐진다. 해변에 나무덱 산책로를 잘 꾸며 놓았다. 밤이면 조명등 따라 산책하는 사람이 많다. 추암해변과 어달리 해안도로, 묵호항이 인근에 있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캠핑카라바닝 대회가 열린다.

충남 태안 | 몽산포 오토캠핑장
대형텐트 2백동 이상… 대하·꽃게 식도락여행도

태안 해안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2곳이다. 반도 북쪽의 학암포와 중반부에 있는 몽산포가 그곳이다. 그중 몽산포오토캠

핑장은 캠핑족들이 꼽는 서해안 최고이자 태안반도에 최초로 조성된 오토캠핑장이다. 대형 텐트 기준 2백동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캠핑장이다.


김승완 기자

캠핑장은 해안을 따라 3킬로미터에 이르는 소나무숲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여름엔 그늘을,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돼 준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구분이 따로 없어 적당한 위치에 사이트를 꾸리면 된다. 바람이 불거나 겨울이라면 소나무숲 안쪽에 자리 잡는 게 현명하다.

몽산포항이 불과 5분 거리, 저녁이면 조개구이 냄새가 그윽하다. 대하와 꽃게철에는 식도락여행을 겸할 수 있다. 봄가을엔 물때에 맞춰 갯벌체험이 가능하다.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 규모가 넉넉하지만 겨울에는 샤워장을 폐장한다. "그래도 복잡한 여름보다는 봄, 가을, 겨울이 훨씬 낭만적"이라는 게 다녀온 사람들의 평이다. 서산방조제와 청산수목원이 반경 10킬로미터 내에 있다.

충남 태안

학암포 오토캠핑장

백사장 안쪽 아담한 규모… 방파제 낚시도 즐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반도 북쪽 학암포에 있는 학암포오토캠핑장은 원래 야영장으로 유명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독립된 주차공간과 캠핑 사이트, 전기시설과 샤워장 등을 갖춰 2010년 4월 이곳에 오토캠핑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백사장 안쪽으로 텐트 사이트 66개, 카라반 사이트 4개 등 총 70여개 사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텐트 사이트는 아담해 대형 텐트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학암포 해수욕장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다. 캠핑장과 1킬로미터 거리에 학암포 자연관찰로가 조성돼 있다. 방파제 낚시를 즐길 수 있고 천리포수목원도 20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있다. 하늘이 보이도록 설계한 자연채광 샤워장은 아쉽게도 여름에만 개장한다. 캠핑장도 11월까지만 운영한다.

전남 해남

땅끝 오토캠핑장

송호해수욕장 앞 위치… 캠퍼들의 '로망' 명성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캠핑장 바로 앞은 송호해수욕장이다. 이곳 오토캠핑장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 땅 끝에서 캠핑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풍광이 빼어난 남도 여행을 덤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청

땅끝과 미황사, 녹우당 등 남도 답사 외에 배를 타고 40분 걸리는 보길도를 둘러보거나 바지선 낚시도 즐길 수도 있다. 시인 김남주 생가도 지척에 있다. 단, 캠핑장 주변 관광지를 다 돌아보려면 최소 2박은 해야 한다.

계단식으로 조성돼 있는 캠핑 사이트는 소형 텐트가 적당하다. 상단으로 갈수록 바다 전망이 좋다. 취사장엔 가스레인지 등 간단한 취사 장비가 구비돼 있다. 카라반은 노약자를 대동한 가족캠퍼들에게 인기다. 인근 송지면 어란 포구가 있어 제철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해 요리해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전국 바다 캠핑장

캠핑장 이름	위치	이용료(1박 기준)	예약 및 문의
동해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6370	7~8월 성수기 외 주말 2만7천5백원	033-534-3110 www.campingkorea.or.kr
양양 바다캠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1-19	야영료 2만원	033-672-3386 www.badacamp.com
태안 몽산포 오토캠핑장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5-40, 353-50	전기사용료 포함 1박 1만8천원(전기밥솥, 난로, 온풍기, 히터, 커피포트 등은 사용 불가)	011-409-9600 www.mongsanpo.or.kr
태안 학암포 오토캠핑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75	1만1천원, 전기료 2천원	041-674-3224 taean.knps.or.kr
서천 해오름 관광농원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72-756	2만원, 전기료 3천원	041-952-1617 hormfarm.co.kr
부안 고사포 야영장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고사포 441-7	무료	063-582-7808
화성 해솔마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산 107-4	2만5천원(전기료 포함)	011-9182-7110
해남 땅끝 오토캠핑장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45	성수기 외 평일 1만원, 주말 1만5천원	061-534-0830
거제 자연휴양림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	입장료 1천원, 야영료 3천~5천원, 주차료 2천원	055-639-8115 www.geojehuyang.or.kr
고성 송지호 오토캠핑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 169-2	1박 2만5천원(주차, 샤워장 이용료 포함) 단, 5월 초~9월 말 한시적 운영	033-680-3164 camping.goseong.org

※ 이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마신다"… 숲속의 낭만캠핑

가을철 단풍과 함께 아늑한 야영 즐겨… 다양한 트레킹 코스도 장점

캠핑에 정석은 없지만 가장 흔한 캠핑 장소는 누가 뭐래도 산이다. 산에서는 피톤치드 가득한 청정한 공기와 재잘재잘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가을엔 단풍을 즐기며 낭만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운치가 있다.


조선DB

숲속 오토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기는 캠퍼들. 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를 마시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아토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경기 가평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울창한 숲속에 파묻힌 '연인을 위한 캠핑장'

연인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으로서 경기권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오토캠프 36동과 모빌홈(이동식 주택) 14동 등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울창한 숲속에 파묻혀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캠퍼들은 '연인을 위한 캠핑장'이라고 부른다.

샤워실에서는 사계절 온수가 나와 겨울에도 편리하며 화장실도 매우 깨끗하다. 야영이 부담스럽다면 모빌홈이나 캐빈하우스(통나무집)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나무덱이 4인용 이하의 소형텐트만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돼 있어 대형텐트를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인근에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남이섬 등 연인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가기에 알맞은 명소가 많아 잠깐 나들이를 하고 오기에도 좋다.


조선DB

강원 원주

두리 오토캠핑장

차두리 닮은 '캠장'… 사방이 자연 놀이터


두리 오토캠핑장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어디에 텐트를 치더라도 그대로 자연 놀이터가 되는 캠핑장이다. 사장이 축구선수 차두리를 쏙 빼닮아 캠핑장 이름도 아예 '두리'로 지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넓은 잔디구장이 펼쳐져 있어 마음 놓고 공을 차며 놀 수 있다. 가을엔 캠핑장이 자리한 감악산이 온통 빨간 단풍으로 물들어 절경을 이룬다. 숲과 마주한 계곡도 이곳의 자랑이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계곡물은 여름철 물놀이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며, 겨울엔 송어를 잡을 수도 있다.

매점과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해도 불편함이 없다. 특히 샤워장과 개수대에서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에 매우 편리하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평소 관리도 철저하게 되고 있어 캠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중앙고속도로 신림IC가 지척이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전북 장수

방화동가족휴양촌 오토캠핑장

숲과 계곡 둘러싸여… 겨울에도 이용 가능


조선DB

캠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캠핑장으로 손꼽힌다.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가족단위 휴양지로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고 관리상태도 좋다. 오토캠핑장 2곳, 야영장 3곳 외에 모험 놀이장, 가족 놀이장, 광장, 전망대 등의 시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은 다른 캠핑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2백여 대의 자동차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어 여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흔히 캠핑장은 겨울철엔 잠시 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동파방지 시설을 갖춘 개수대와 넉넉한 크기의 수세식 화장실을 겨우내 이용할 수 있다. 울창한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삼림욕과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전북 남원

지리산 달궁자동차야영장

텐트 4백동 수용…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

경남과 전남, 전북에 걸쳐 있는 지리산엔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만 8곳에 이른다. 그중 달궁야영장은 지리산의 캠핑장 중 가장 대표적이다. 모두 4백동 정도의 텐트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도 크다. '자동차야영장'이란 이름답게 오토캠핑이 가능하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20여 곳에 이른다.

달궁자동차야영장은 예약이 되지 않지만 사이트가 넉넉해 여름 성수기가 아니라면 자리를 잡는 데 크게 어렵지 않다. 주변에도 크고 작은 야영장이 있어 마음가는 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만이다.

야영장을 지나는 길은 성삼재와 노고단·정령치로 가는 도로로, 단풍을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천년고찰 화엄사도 가을철에 둘러보면 좋은 곳이다. G

글·손수원 기자

전국 산 캠핑장

캠핑장 이름	위치	이용료(1박 기준)	예약 및 문의
유명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 35	야영료 2~8천원, (입장료, 주차료 별도)	031-589-5487 cafe.daum.net/yumyondan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357	야영장 1만원, 모빌홈 6만~9만원	031-582-5701 www.gpyeonin.co.kr
합소 오토캠핑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83-4	비수기 기준 2만8천원 (전기료 포함)	010-5269-7584 www.hapso.net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2-1	야영데크 4천원, 오토캠프 8천원 (입장료, 주차료 별도)	033-562-5833
대관령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 2-1	야영데크 4천원 (입장료, 주차료 별도)	033-641-9990
두리 오토캠핑장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525	야영장 2만5천원 (전기사용료 3천원)	033-765-8569 www.duriautocamping.com
마방 오토캠핑장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722	2만원, 전기 사용료 2천원	054-672-7362
장수 방화동 가족휴양촌 오토캠핑장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625	텐트 소형 5천원, 대형 1만원 (입장료 별도)	063-353-0855 www.jangsuhuyang.kr/Banghwa1
지리산 달궁자동차 야영장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93-4	야영장 비수기 기준 1천6백원, 오토캠핑 9천원 (전기사용료 2천원)	063-625-8911 jiri.knps.or.kr
백운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115-1	야영장 1천원, 오토캠핑장 4천원 (입장료 별도)	061-763-8615 bwmt.gwangyang.go.kr
서귀포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산 1-1	야영장 2천원, 야영데크 4천원 (입장료, 주차료 별도)	064-738-4544 huyang.seogwipo.go.kr

※ 이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門前 캠핑장'… 대도시 캠퍼들에 희소식

금강 합강공원 캠핑장서 1박2일 시범개장… 12월 초 4곳 모두 오픈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한강·금강·영산강에도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져 오토캠핑족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대도시와 인접해 오토캠핑족들이 오가기 편하고 경관이 뛰어난 강변 지역에 오토캠핑장을 시범 조성해 개방한다.

차가운 가을밤을 데우는 화롯불, 도란도란 이어지는 노변정담, 텐트 앞을 지키는 랜턴 불빛….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낭만적인 캠핑의 밤이 금강변에서 펼쳐졌다.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서는 10월 8일부터 1박2일간 '제1회 금강 전국 오토캠핑대회'가 열려 약 50팀 60가구, 3백여 명이 캠핑에 참가했다.

합강공원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지점에 만들어진 곳으로, 합강 지점에 형성된 수변생태공원과 세종시의 정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합강공원에서 열린 이번 캠핑대회 참가자들은 낮에는 바람개비와 등, 로켓 등을 만들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하며 소중한 추억을 가족과 함께 만들었다.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는 그늘이 없어서 그늘막을 준비하고 가을밤이 쌀쌀해 화로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캠핑의 매력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이번 캠핑에 참가한 회사원 황인태(43)씨의 소감이다. 4년 전부터 캠핑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황씨는 인터넷 캠핑 동호회 '캠핑하는 사람들'의 운영자이다.

편의·운동시설 설치… 곳곳에 피크닉장도 만들어져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오토캠핑 시범사업장 중 한 곳이다. 연말까지 4대강에 합강공원을 비롯해 모두 4곳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선다.

4대강 오토캠핑장에는 임시화장실과 샤워시설, 상수도, 음용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캠핑카를 이용하거나



유창우 기자

강변 캠핑장은 이런 곳!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만들어진 캠핑장으로, 강변에 조성된 도심 캠핑장의 효시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차를 세우고 그 옆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오토' 구역과 캠핑 텐트만 설치할 수 있는 '웰빙' 구역이 지역 수요에 맞춰 만들어진다. 지역에 따라 캠핑카를 위한 전기공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1팀의 홍원식 사무관은 "4대강 오토캠핑장은 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됐으며, 관리와 운영기관이 결정되면 12월 초부터 일반 캠핑족들이 이용할 수 있다"며 "4대강변에는 오토캠핑장 이외에도 곳곳에 피크닉장이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충남 연기·금산

금강 캠핑장
금산 용화리에도 조성… 잔디구장 갖춰


김은주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금강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두 곳이 만들어진다. 오토 1백10면, 웰빙 15면 규모의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이외에 금강변에 들어서는 또 다른 캠핑장은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에 조성된다. 용화리 오토캠핑장의 규모는 55면. 모두 캠핑카나 자동차를 세우고 텐트를 칠 수 있다. 캠핑장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생태하천, 다목적 잔디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화리는 용담댐 하류 지역으로, 용담댐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구불구불 용틀임하듯 전북과 충남북을 넘나들며 내려와 래프팅족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이다.

용화리 소재 마달피삼육수련원의 맑은 강물살을 헤쳐 내려가는 래프팅 강습도 즐길만 하다. 용화리 오토캠핑장 인근 상류지역에는 드라마 〈상도〉 촬영장소였던 적벽강을 비롯, 주변 경관이 빼어나다. 또 금강 상류다 보니 수질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하는 청정지역이란 점도 용화리의 장점이다.

경기 여주

한강 오토캠핑장
여주 이포보 바로 옆… 23일까지 주말캠핑 행사


조선DB
이포보

한강오토캠핑장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당남지구에 위치한다. 당남지구 오토캠핑장은 그 규모가 1백25면(오토 60면, 웰빙 65면)으로 4대강 오토캠핑장 중 가장 큰 규모다.

당남지구 캠핑장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4대강 16개 보(洑)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아름다운 보 선정 이벤트 결과 1위에 뽑힌 이포보가 바로 곁에 위치해 있다. 또 비만 많이 오면 상류지역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로 범벅이 되곤 했던 상습침수지역인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오토캠핑장

수계명	위치	수용 규모	면적	비고
한강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125면	24,607㎡	오토 60면, 웰빙 65면
금강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55면	13,456㎡	오토 55면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125면	100,000㎡	오토 110면, 웰빙 15면
영산강	광주시 남구 승촌동	60면	6,600㎡	오토 10면, 웰빙 50면
계	4곳	365면	144,663㎡	오토 235면, 웰빙130면

*오토 : 캠핑카 이용면, 웰빙 : 텐트 이용면 **자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당남성이 강바닥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지면서 공원으로 탈바꿈해 만들어진 생태공원이 바로 곁에 있고, 야구, 축구, 족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당남지구 오토캠핑장에서는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말마다 '현대차와 함께하는 강뜰애 오토캠핑' 행사가 개최된다.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연속 3주간 주말마다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호회와 소외계층의 1백80가족, 약 8백명이 참석한다. 현대자동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모집 중. 문의 ☎ 02-544-0774

광주시 남구

영산강 오토캠핑장
광주 승촌보 승촌공원에 60면 규모로 들어서


조선DB
승촌보

영산강 오토캠핑장은 광주시 남구 승촌보 하류 지점인 승촌공원(가칭) 안에 위치한다. 규모는 60면이며 오토 10면, 웰빙 50면이다. 주변 경관이 빼어나 '영산강 8경(景)' 가운데 6경인 승촌보, 5경인 나주평야가 바로 곁이고 4경인 죽산보도 멀지 않다. 또 자동차로 나주에서 15분, 광주에서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다.

영산강 오토캠핑장의 매력은 우선 승촌공원 자체에 있다. 총 30만평방미터 규모로 만들어지는 승촌공원은 축구장을 비롯해 각종 생활운동시설은 물론 선사체험 문화관, 자연습지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앞은 영산강, 나머지 4면은 옛강이 둘러싸고 있어 섬에 온 느낌마저 든다. 또 황포돛배 나루터가 있어 하류 쪽 나주 영상테마파크까지 황포돛배를 타고 오갈 수도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4대강콜센터 ☎1577-4359(10월 말까지), ☎1877-4000(10월 말부터)
4대강 이용 도우미 포털 www.riverguide.go.kr


오랜만에 함께하는 캠핑이라서 그런지 우리들은 밤새워 술잔을 기울이며 강변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을 안주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두려움 · 공포의 강에서 여유 · 즐거움의 강"

합강 오토캠핑장서 강을 배경으로 가로등 아래 야영 "하루가 너무 짧아"

나는 탈북자다. 수년 전 두만강을 건너 남한으로 왔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남한의 대학생이 되어 자유로운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엔 남한에서 만난 탈북자 친구들과 금강의 캠핑장으로 가 텐트 치고 밤새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정을 나누었다. 과거 내가 살던 두만강에서는 얻을 수 없었을 추억이었다.

화창한 날씨가 더없이 좋은 날, 친구 세 명과 차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탈북자 친구들로, 금강으로 1박2일 야영을 하러 가기로 한 것이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엿한 직장인 친구도, 아직 나처럼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간 만이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여기저기서 공사를 한다고 어수선한 모습이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금강은 여전히 자연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였고, 우리가 하루를 보낼 합강 오토캠핑장은 야영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소주 한잔 곁들인 우정의 바비큐 파티

합강공원 내 캠핑장에 도착한 우리는 허둥지둥 짐을 내리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 중 아무도 텐트를 쳐 본 적이 없던 터라 한참을 헤맸다. 텐트를 이리저리 조립하다가 다시 풀고…. 하지만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다 이내 야생에 적응이라도 하듯 아주 훌륭하게, 그럴듯하게 텐트를 쳤다.

캠핑장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함께 캠핑을 한다는 것만으로 즐거웠다. 시간이 흘러 이내 하루해가 저물어 갔다. 야산에 걸린 해는 붉은 노을과 함께 환상의 조합을 이루었고, 우리는 하루가 이렇게 짧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금강변 양쪽에는 은은한 빛의 가로등이 켜졌다. 고요함이 잔잔히 흐르는 강변을 배경 삼아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숯불에 올린 삼겹살은 우리의 깊은 우정만큼이나 맛있게 익어갔다.

맛있는 고기에 소주 한잔이 들어가니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문득 한 친구가 "오늘 술 많이 마시고 금강하고 두만강하고 헷갈려서 또 도강(渡江)하는 거 아니야?"라며 농담을 던졌다. 강변의 정적이 우리의 웃음소리로 흥겹게 깨져 버린 듯했다. 우리 네 명은 하나같이 모두 두만강을 건너 남한으로 왔으니 그 친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돼 과거가 더욱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술김에 헷갈려 금강 도강할라" 즐거운 농담

'두만강을 금강으로 여길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활고에 시달린 수많은 북한 사람이 어둠을 헤치며 뛰어들었던 두만강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동시에 생명을 빼앗아 가는 죽음의 통로다.

두만강의 고요함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두만강의 불빛은 순찰병들의 손전등으로 채워진다. 간밤에 누가 또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았는지, 간밤에 누가 또 강을 건너려다 물에 떠내려갔는지 알 수 없는 곳이 두만강이다. 밤이고 낮이고 더욱 삼엄해지는 군인들의 순찰은 두만강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만들었다. 북한과 중국의 공장들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은 두만강을 점점 더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두만강에서 오늘처럼 텐트 치고 밤새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우정을 나누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금강도 두만강도 한반도에 함께 자리한 같은 강이건만 무엇 때문에 이리도 다른 것일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 오염물이 흘러 들어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물에 빠져 죽은 이의 시체가 있어도 누구 하나 묻어 주는 사람 없는 두만강….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 되어 버린 두 강이다.

두만강도 자유와 평온이 있는 강 되길…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금강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고요한 밤, 캠핑장의 다른 가족들도 우리처럼 바비큐를 즐기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텐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금강이 만들어 내고 있는 또 다른 야경이다. 파티를 마친 우리는 조금은 쌀쌀한 가을밤을 뒤로하고 텐트로 들어와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뽀얀 안개가 자욱한 금강은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전날 해가 지던 그 산은 안개 속에 묻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여기가 두만강이었다면 강을 건너기 딱 좋을 시간이다.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 만큼 긴장이 가득한 그 시간. 하지만 이곳 금강은 다르다. 새들은 유유히 먹이를 구하고 낚시꾼들은 강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세월을 낚으며 기다리는 여유로운 시간이다. 신선한 아침 공기 덕에 우리는 해장할 필요 없이 온 몸이 개운해졌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1박2일의 짧은 여행을 뒤로하며 생각에 잠겼다. 두만강도 금강처럼 자유와 평온함이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G

글과 사진 · 김은주 (서강대학교 학생)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새로 개장한 합강 오토캠핑장에서 즐긴 신나는 하룻밤. 강변과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이 낭만적이다.

아빠만 일해?… 그럼 엄마·아이가 따분해!

콘도·펜션과 다른 야영… 모든 가족이 서로 배려하면 즐거워져

오토캠핑은 분명 장비를 손수 들고 다니던 과거의 캠핑에 비해 편리하다. 하지만 여전히 콘도나 펜션보다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만족도를 화끈하게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한 네가지 비법을 공개한다.

우리나라 자연을 싫어하고, 게으르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의리 없는 사람은 캠핑할 수 없다. 캠핑은 대자연을 만끽하고 남보다 부지런해야 하며, 당장 결과를 바라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의리가 있어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캠핑은 힘들고 불편하며, 피곤하고 귀찮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이 캠핑에 열광하며 매 주말 트렁크마다 짐을 가득 싣고 온 가족을 태우고 캠핑을 다니고 있다.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과 가족, 친구와 연인들의 만족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팁을 전수해 주고 싶다.

1 홈그라운드를 만들자

집에서 가기 쉬운 경치 좋은 곳을 골라 홈그라운드 캠핑장을 만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에서나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너무 좋다. 홈그라운드 캠핑장을 정해 놓고 캠핑을 하면, 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의 기술이 는다.

매주 새로운 캠프지를 찾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좋다. 홈그라운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익숙해지고,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 홈그라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매번 같은 곳에서 캠핑하는 데 즐거울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캠핑장을 다녀도 다른 느낌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자연이다. 4계절이 분명해서 정말이지 매주 그 기분과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그러다가 두 달에 한두 번 정도 가고 싶은 캠핑장을 찾으면 그 느낌 또한 묘한 매력을 준다. 캠핑 가는 기분도 좋아진다. 노하우도 늘어 짐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캠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것이다. 일 년 정도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캠핑을 하면 그곳의 터줏대감이 되어서, 계절마다 적절한 텐트 위치와 방향, 적당한 메뉴와 활동들이 몸에 익고, 다른 곳에 가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2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단순화 하라

캠핑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텐트 치는 데 한 시간, 식사 준비하는 데 한 시간, 먹고 치우는 데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한다. 아이들과 배드민턴을 치거나 주변을 걷다 보면 어느새 다음 끼니를 준비할 시간이 된다. 그래서 쉬러 온 것이 아니라 먹고 치우러 온 듯한 느낌이 들어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을 목적을 위해 단순화하기를 권하고 싶다. 가령, 책 한 권을 읽을 목적이라면 요리는 간단히 먹고 치울 수 있는 것 위주로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 주변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게 요량이라면 도시락을 미리 준비하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과 짐을 줄일 수 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챙겨야 할 준비물도 단순해진다. 낚시를 주제로 삼으면 해먹(그물침대)이나 배드민턴 용품 같은 것은 자연히 필요가 없다. 필요도 없는 짐을 자동차 트렁크에 억지로 싣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불필요한 짐만큼 지치기 때문이다.

3 캠핑 요리는 쉬운 것 위주로 해라

요리는 캠핑의 꽃이고 주인공이다. 캠퍼들 대부분이 숯불 바비큐나 철판구이 같은 요리를 꿈꾼다. 환경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캠핑장은 바람이 많이 불고, 주위가 산만하며, 요리 시설이 집보다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곳에서 성공적인 요리를 하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한 것을 하는 게 좋다. 집에서도 못 해 먹는 요리를 준비하거나 십수 년 전 군대에서 해본 요리를 기억을 더듬어서 준비하면 1백퍼센트 실패한다.

일단 기본인 밥과 국, 몇 가지의 밑반찬을 준비하자. 그러면 일



사진 · 그녀는 언제나 맑음 · 두리 오토캠핑장

즐거운 캠핑이 되려면 우선 집에서 가기 쉬운 곳을 골라 홈그라운드 캠핑장을 만든다. 가기 전에는 '책 한권 읽고 오기' 등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요리는 최대한 조리가 쉬운 것으로 해 시간을 절약한다. 가족이 함께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캠핑을 즐기는 방법이다.

단 밥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바비큐나 철판요리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게 좋다. 싱크대나 찬장같이 정리된 시설이 없는 캠핑장에서 기본적인 밥과 국, 찌개를 준비하는 것도 초보자들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알고 있는 요리 중에서 가장 쉬운 요리를 해야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쇠 솥(더치 오븐)에 요리를 하거나 평소 번거로워 해 먹지도 않는 베이컨 말이나 서양 요리를 캠핑장에서 하면 아마도 땀만 뻘뻘 흘리고, 재료의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숯불 바비큐도 마찬가지다. 평소 삼겹살집이나 갈비집에서 고기만 뒤집던 기술로는 맛있는 바비큐 요리를 할 수 없다. 불 피우기부터 시작해 적당한 화력을 유지하기, 타지 않고 연기 안 나게 굽기, 남은 재 처리하기 같은 것을 모르면 대부분 검게 그을리고 육즙이 다 빠진 맛없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4 여자와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라

캠핑은 그야말로 의식주의 이동이다. 챙겨야 할 준비물은 많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집을 짓고 부엌을 만들고, 요리를 해야 하며, 식수를 준비하고, 응접실도 만들어야 한다. "밖에 놀러 나와서는 남자가 일을 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어, 운전도 텐트 설치도 요리도 식수 준비도 대부분 남자가 도맡아 하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 여자나 아이들은 할 일이 없어 캠핑을 따분하게 느끼고, 반대로 남자들은 녹초가 된다. 캠핑장에서는 쉬운 일도 모이면 어려운 일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나누면 쉽고 즐거워진다. 물 떠오기는 아이들이, 운전은 엄마가, 텐트 설치는 다 같이 해보자.

물론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해도 한두 번 해보면 기특하게도 잘 해낼 것이다. 아이들에게 주변 청소나 텐트 청소 등을 맡기면 책임의식이 생겨 오히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어지럽히지 말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G

글 · 한형석 (아웃도어 플래너)

저렴한 비용의 친환경 캠핑장 많아져야

캠핑장비도 필요 이상의 고급화로 가격 비싸져 캠핑열기 식을 우려

"캠핑이 대세다"라는 낙관적인 말처럼, 과연 캠핑환경은 장밋빛 탄탄대로일까? 지난 4년간 캠핑에 관련된 일을 해온 경험칙으로 미뤄보면, 현재의 상황은 '위기의 오토캠핑 산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희망없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위기를 말하려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아웃도어 시장의 화두는 '오토캠핑'이다. 텔레비전이나 광고를 통해 '캠핑'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추억 속의 단어가 아닌 현재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에는 아웃도어 시장이 열린다"는 말처럼 주말 전국의 휴양림과 오토캠핑장에는 랜턴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지 한쪽에 음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화려한 오토캠핑 붐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오토캠핑 문화와 산업이 정착되느냐, 일시적 유행으로 흘러가 버리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오토캠핑이 고비용 레저로 인식될 가능성도

캠핑은 1990년대 국립공원 취사, 야영 금지 조치에 따라 잊힌 추억 속의 놀거리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오토캠핑 동호회와 언론 매체들을 통해 국민레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의 오토캠핑 인구(3~4계절 지속적으로 캠핑하는 인구)는 약 30만명, 캠핑장은 국립공원 포함 약 5백여 개로 추정된다. 캠핑장비 산업은 지난 3년간 약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오토캠핑 장비의 시장 규모는 약 1천억원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관련 제조사와 유통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호황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오토캠핑은 비용이 많이 드는 레저로 자리를 잡는 듯하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주문자생산방식(OEM)을 택하고 있는 업계는 과열 경쟁으로 지나치게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오토캠핑은 가족과 함께하는 레저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원시적이고 일상적인 레저다. 그래서 캠핑은 '자연을 좋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마음이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이웃으로 넓혀질 때 올바른 오토캠핑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또한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필요 이상의 고급화를 선호하는 일부 업체의 비현실적인 가격정책, 그리고 이에 맞물려 이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 때문에 장비 가격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격상승은 일부 산업이 뿌리 내리기 이전에 소규모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 경쟁이 심화되면 자연스레 소멸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각 기업들은 산업규모를 키우기보다 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아직도 소규모 시장 체제를 유지하며 가격상승만을 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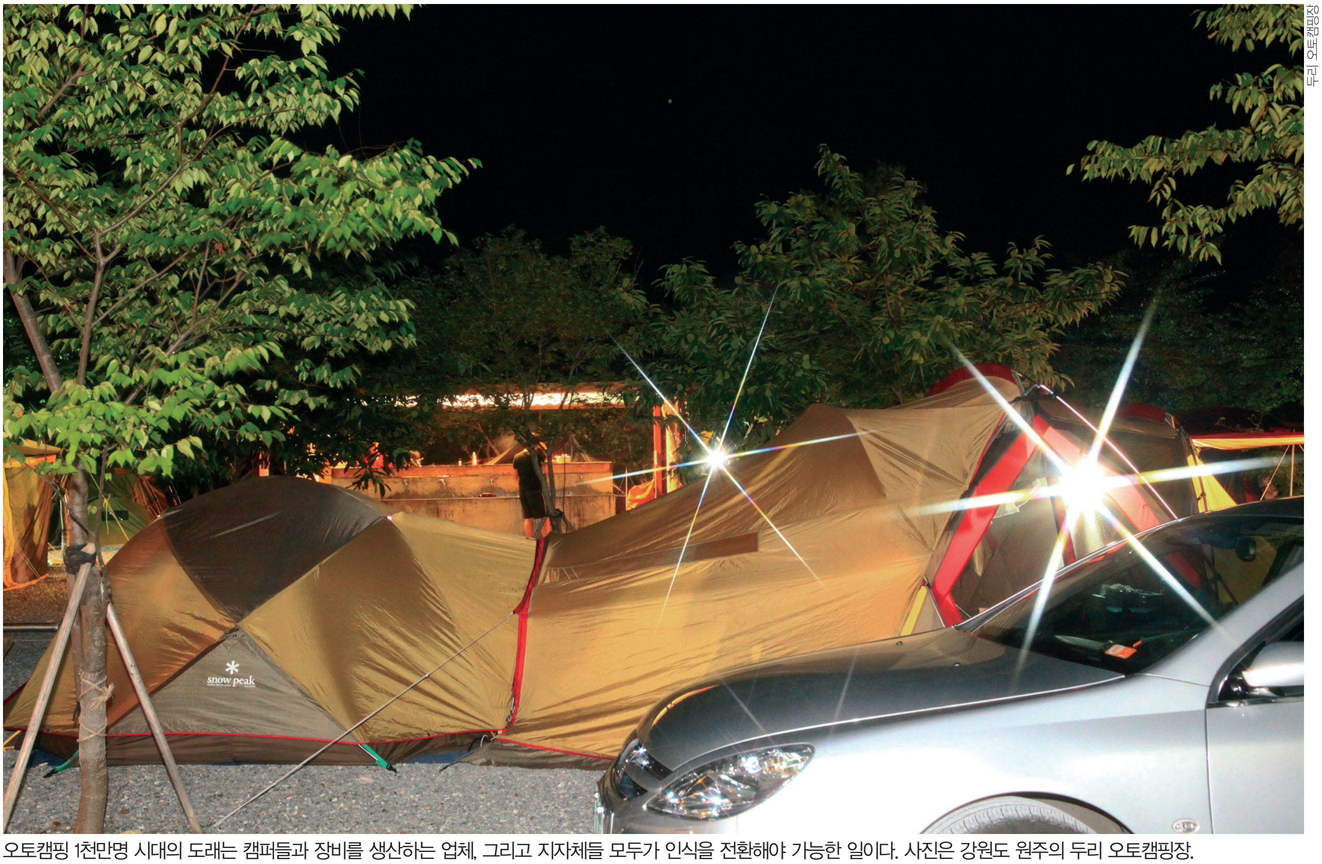
캠핑은 기본적인 장비를 보유해야만 즐길 수 있는 야외레저다. 따라서 업계의 과도한 가격상승은 '캠핑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인 것이다.

"사설캠핑장 난립… 비싼 이용료도 부담"

비단 이러한 문제점은 장비산업뿐만 아니라 캠핑장의 요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 캠핑장의 부재로 사설캠핑장 이용이 많아지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바람에 매년 요금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캠핑장 형태는 다양한 야외 레저 활동을 동일한 숙박공간으로 변모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캠핑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문제다. 무분별하게 펜션의 앞마당을 캠핑장으로 바꾸고, 나대지를 바꿔 간이시설물을 건립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이러한 규정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숙식을 하는 오토캠핑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논리에 관련 지자체와 기관들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캠퍼들 숫자에 따라 안전에 대



두리 오토캠핑장

오토캠핑 1천만명 시대의 도래는 캠퍼들과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그리고 지자체들 모두가 인식을 전환해야 가능한 일이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의 두리 오토캠핑장.

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지, 오폐수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은 없는지 등,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규제는 신속하게 현실적으로 제정되고 정비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날 국립공원 취사금지 법안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새로운 비용이 드는 신규 캠핑장 건립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취사 금지'에 대해 재검토해 국민 여가생활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법안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

'오토캠핑 1천만명 시대' 올바른 문화 정착돼야

캠핑장 건설도 그렇다. 캠핑장을 만들 때 최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적 캠핑장을 만들어 캠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많은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레저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바꿔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문화는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토캠핑은 가족과 함께하는 레저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원시적이고 일상적인 레저다. 아이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접하는 아웃도어 스포츠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고, 도심과 농촌을 보다 현실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캠핑은 '자연을 좋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마음을 굳이 우리 가족이라는 테두리보다 이웃으로 넓히면 올바른 오토캠핑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어느 한쪽만의 목소리가 커져 과욕이 표출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는 캠핑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기도 전에 잊혀 가는 레저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캠퍼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연 오토캠핑 1천만명 시대를 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G



글 · 이동환 (네이버카페 '캠핑퍼스트' 동호회장)

4세대 이동통신 4G LTE폰 '그것이 알고싶다'

전송속도 '초광속'… 3G보다 5배 빠르다

최근 텔레비전 광고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LTE'다. 단말기 회사들은 앞다퉈 최신 LTE폰을 출시했고 통신사들은 데이터 폭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LTE에 집중하고 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이동통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LTE는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4세대 이동통신(4G) 표준의 하나다. 3세대 이동통신(3G)이 '오랜 기간 진화했다'는 뜻이다. LTE, 4G 등의 용어는 전기통신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통신사, 제조사 등이 모여 규정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빠른 속도'로 대변된다. 삼성전자는 자사 광고에서 LTE폰의 속도를 "입대를 하자마자 제대하는 속도" "고 3이 되자마자 대학생이 되는 속도"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실제 4G의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4G의 체감속도는 3G보다 5배 정도 빠르다. 약 1.4기가바이트(GB) 용량의 고화질 영화를 3분이면 다운받을 수 있는 셈이다. 4G의 속도가 빠른 것은 넓은 주파수 대역폭과 다중 안테나 덕분이다.

4G(1.4~20메가헤르츠)는 3G(5메가헤르츠)에 비해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이 훨씬 넓다. 또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훨씬 빠르다. 다중 안테나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는 것을 가능케 한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는 꾸준히 진화해 왔다. 3G, 4G 등에 쓰이는 알파벳 'G'는 무선통신의 '세대(Generation)'를 뜻한다. 예컨대 3G는 3세대 통신기술을, 3G폰은 3세대 통신기술로 통신하는 단말을 말한다.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1981년에 상용화됐다. 당시의 주요서비스는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통화였다. 이어 1991년 등장한 디지털 방식의 2세대 통신표준은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가능케 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진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주요서비스	음성	음성, SMS	음성, 무선인터넷, 영상통화	멀티미디어, 통신
전송속도	10kbps	14.4~64kbps	144kbps~2Mbps	100Mbps
상용화	1981년	1991년	2000년	2010~2012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조선DB

4세대(4G) 이동통신은 3세대 이동통신보다 8배 뛰어난 고화질 화면을 제공한다. 사진은 한 통신회사가 지난 4월 LTE 시연회에서 선보인 영상 통화 장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4G, 오른쪽이 3G 모니터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중인 3G는 무선인터넷과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 통신표준으로, 2G와 3G는 USIM이라고 불리는 칩의 유무로 구분된다. USIM칩은 3세대 단말기에 탑재되는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 3G 이동통신은 이전에 비해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했지만 PC에서와 같은 웹서핑 속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LTE를 주축으로 하는 4세대 통신기술이다.

1981년 음성통화 1G 상용화 후 비약적 발전

일부에서는 "현재의 LTE는 4G가 아니라 3.9G"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LTE가 속도 측면에서 완벽하게 3G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4G로 봐도 무방하다"며 "소비자 체감 기준에서 3세대 이동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세대 이동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차이는 접속방식에 있다. 3G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 코드를 분할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4G는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를 사용한다.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이란 쉽게 말해 주파수를 잘게 쪼개 다중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4G는 고화질의 동영상과 3D 입체영상 전송을 가능케 한다는 특징이 있다. G

글·박소영 기자

4세대 이동통신 Q&A

화상통화 일반화… '데이터 시대' 등장한다

Q 와이브로(Wibro)도 4G 기술 중 하나로 알고있다. LTE와의 차이점은.

A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Wireless Broadband)의 줄임말로, 한국이 주도하는 4G 기술이다. 3G의 5메가헤르츠 대역폭보다 넓은 10~30메가헤르츠 대역폭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와이브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LTE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음성이 아닌 데이터 전용으로만 쓰이고 있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LTE보다 느리지만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Q 와이맥스란 무엇인가. 와이브로와 모바일 와이맥스의 관계는.

A 와이맥스(WiMAX,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는 미국 인텔사가 개발한 무선 통신 기술이다. 주변 장애물이 없을 때 전송거리는 약 45킬로미터에 달하며, 전송 속도는 5~10메가비트(Mbps) 정도다. 와이브로와는 달리 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보장하지 않는다. 와이브로와 와이맥스는 같은 기술 표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와이맥스를 고정형 와이맥스(fixed WiMAX), 와이브로를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로 분류한다.

Q LTE의 단점은 무엇인가.

A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실제 속도가 이론상 속도에 비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며, 전용 LTE폰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Q 3G에서 4G로, 4G에서 4G 이후로 갈수록 음성통화의 질이 좋아지나.

A 그렇지는 않다. 4G는 무선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 표준일 뿐이다. 3G보다 좋은 환경에서 무선데이터를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4G가 적합하지만,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4G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Q 이후에는 어떤 통신 표준이 등장하나.

A 차세대 버전으로 LTE-어드밴스드와 와이브로-에볼루션이 있다. LTE-어드밴스드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해 2013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이며, 6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9.3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재의 3G 대비 약 40배 빠른 속도다. LTE-어드밴스드와 와이브로-에볼루션은 이전의 4G보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폭과 더 많은 수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Q 4세대 이동통신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웹서핑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영상통화가 더욱 일반화될 것이다. 3G가 상용화된 직후 영상통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인프라와 서비스의 한계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4G 이후에는 영상통화가 웹캠, 화상회의 등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으로 영상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열린다. 또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고진감래〉

"苦盡甘來! 아버지 말씀대로 됐네요"

2백11번 도전 끝에 PGA 우승 나상욱… "나는 당당한 한국인 골퍼다"

2백10전 2백11기. 한때 '골프 신동'으로 불리며 미국과 한국에서 최고의 골프 기대주로 꼽혔던 재미동포 나상욱(미국이름 케빈 나)이 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나상욱은 그간 2백11개 대회에서 2위에 3번, 3위에 5번 오르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성공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AP연합

PGA투어 2백11번째 도전 끝에 정상에 오른 나상욱은 "모든 사람이 내게 우승을 기대했지만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며 "이제 정말 홀가분하다"고 했다.

근대 골프스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전설적 골퍼 벤 호건(1912~1997)은 지독한 사람이었다. 그는 1백개의 샷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1백개를 쳤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습하던 그는 호텔방에서 퍼팅이 빗나가도 '처음부터 다시'였다. 그러다 한숨도 못 자고 경기장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엄청난 노력과 훈련만이 제대로 된 스윙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던 그는 "진흙 속에서 (진정한) 스윙을 캐내라(digging it out of the dirt)"는 명언도 남겼다.

이런 벤 호건의 이야기를 미국프로골프투어(PGA) 데뷔 8년 만에 2백11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나상욱(28)이 남몰래 간직했던 비결을 털어놓듯 기자에게 속삭였다.

주니어 시절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1백승 넘게 이뤘던 '골프 신동'이 PGA투어에서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는 간단치 않은 시련이 있었다.

2위 세 번·3위 다섯 번 지독한 불운 떨쳐

지난 10월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TPC(파71·7천2백23야드)에서 열린 미국 PGA 투어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4라운드. 이 대회는 PGA 투어 랭킹 중·하위권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가을 시리즈 첫 대회였다. 닉 와트니(미국)와 1타 차 접전을 벌이던 나상욱은 17번홀(파3)에서 13미터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최종 합계 23언더파 2백61타를 기록해 와트니(21언더파)를 2타 차로 제쳤다

올 시즌 라운드당 퍼트 수 27.7개로 PGA 투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상욱의 퍼팅 능력이 결정적 순간 빛을 발한 것이다.

나상욱은 그간 2백11개 대회에 도전해 2위에 3번, 3위에 5번 오르는 등 꾸준히 성적을 올렸지만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 우승 전까지 나상욱은 우승 없이 통산 상금 1천만 달러를 돌파한 선수 3명 중 1명이었다.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난 나상욱은 여덟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가 이듬해부터 골프를 시작했다. 주니어 시절 나상욱은 미국 최고의 선수로 손꼽혔다.

1996년 열세살 나이로 US주니어챔피언십에 출전해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고, 1999·2000년에는 타이거 우즈가 우승(1991년)했던 LA시티챔피언십 2연패를 달성했다. 고교 1학년이던 2000년 나비스코 주니어챔피언십, 핑피닉스 챔피언십, 스콧 로버트슨 챔피언십, 오렌지볼 국제챔피언십에서 모조리 우승하며 미국 주니어 무대를 평정했다. 2000·2001년 2년 연속 미국 주니어 랭킹 1위에 올랐다.

2001년 나상욱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18세 나이에 프로로 전향했다. 2002년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볼보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신인왕을 거머쥔 그는 다음해 퀄리파잉스쿨에 합격해 PGA 투어 최연소(21세) 멤버가 되며 승승장구했다.

"골프는 스윙이 아닌 심장과 머리로" 깨달아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만만치 않았다. 나상욱은 2004년 투어 데뷔 첫해 시즌 상금 90만 달러로 간신히 투어 카드를 확보했다. 스코어 오기로 실격을 당하기도 했고 체력조절 실패로 경기를 중도 포기한 적도 있었다. 2006년에는 시즌 초반 손가락이 차 문에 끼이는 부상을 당했다. 뼈에 금이 가 대회 도중에 기권하고 다섯달 넘게 쉬었다.

그동안 준우승을 세 번 하는 등 될듯 될듯 이뤄지지 않던 우승이 마침내 이뤄지던 날 특별한 일이 있었다. 어머니 정혜원(54)씨가 4라운드가 있던 날 새벽 꿈을 꿨다. "어머니가 누가 좋은 걸 저에게 주려고 하길래 '빨리 받아라, 빨리 받아라' 하고 외치다 잠에서 깼다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몇 년 전부터 2위로 대회를 마치는 악몽에 자주 시달리던 나상욱은 어머니의 길몽이 각별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나상욱은 어릴적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한국어가 능숙하다. "부모님이 철저하게 우리말을 가르치셨어요. 한문도 배우고 사자성어도 많이 외웠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순간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을 아버지가 자주 해 주셨다"고 했다. 아버지 나용훈(58)씨는 지난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다.

나상욱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며 "지금은 완치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셔서 기쁘다"고 했다.

나상욱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을 때 대회 우승자들은 필 미켈슨(미국), 제프 오길비(호주), 어니 엘스(남아공) 등 당대의 고수들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상욱은 "골프는 스윙이 아니라 심장과 머리로 하는 경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챔피언이 될 만한 배짱과 전략을 갖추지 못하면 우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선DB

나상욱이 17세때 오렌지볼 세계주니어골프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아버지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올 여름에는 어린 시절 함께 골프를 배웠던 형 나상현(31·경희대 골프경영학과 객원교수)으로부터 '백스윙을 좀 더 업라이트하게 하라'는 코치를 받기도 했다. 나상욱은 지난해 경희대에 입학해 형과 사제관계가 됐다.

"이젠 한국팬들 응원받으며 더 많은 우승"

나상욱에게 우승 못지않게 힘들었던 일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듯한 정체성 혼란이었다고 한다.

그는 PGA 투어 대회 도중 다른 선수를 응원하던 갤러리가 "저 코리안, 스윙하다가 바람에 날려 연못에나 빠져 버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흥분한 적이 있었다. 이 같은 '차별'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응원군을 한국에서 찾았지만 인터넷 사이트의 한국 기사 댓글에는 '매너도 없는 재미동포', '우승을 할 수 있긴 한 거야' 등 야유성 글이 많았다.

그는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한국 골퍼라는 답이 나온다"며 "한국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많은 우승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우승하던 날 최경주와 양용은·김경태·강성훈·김비오 등 '코리안 브러더스'의 축하 메시지가 그의 휴대폰으로 쏟아졌다.

PGA 투어 한국 골프의 선구자 역할을 한 최경주, 아시아 첫 메이저 챔피언인 양용은은 그가 존경하는 '형님'들이다. 새로운 도약의 첫 걸음을 내디딘 나상욱이 PGA투어에서도 주니어 시절처럼 활약하길 기대해본다. G

글·민학수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천천히 노를 저으며 의암호를 미끄러지다 보면 가을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춘천 물레길

물안개 핀 의암호반 카누의 물길이 열렸다

즐거움과 낭만의 공간 춘천(春川). 최근 들어 낭만을 더하는 일이 더해졌다. 춘천 물레길이 생긴 것. 물안개 가득한 의암호 주위를 캐나디안 카누를 타고 돌아본다. 한가롭게 노를 저으며 조용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할 수 있다. 닭갈비와 막국수 등 춘천의 맛있는 먹을거리도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해준다.







카누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레포츠다. 카누를 타기 전 강습을 받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위 사진). 카누를 타고 가며 바라본 삼악산 풍경(아래 사진).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걷기 열풍이 불었다.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이 생긴 지도 오래다. 걷기는 이제 여행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걷기 길과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의암호 일대를 카누로 여행하는 '물길'이다. 이 길은 '물레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어 있다.

카누는 우리에게 익숙한 레저는 아니다. 주변에서 카누를 체험했다는 이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혹시 배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어도 된다. 30분이면 누구나 물살을 가르며 호반을 미끄러지듯 멋지게 달릴 수 있다.

카누는 북미 인디언들이 즐겨 타던 배다. 강이나 바다에서 교통수단, 수렵도구로 사용했다. 흔히 카약과 혼동하는데, 카누는 한 쪽에만 날이 달린 노를 사용하는 반면 카약은 양쪽에 날이 달린 노를 사용한다.

또한 카약은 배의 덮개가 있지만 카누는 덮개가 없다. 카약이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반면, 카누는 느리고 여유롭다. 카약은 에스키모인들이 주로 탔다고 전해진다.

'붕어섬 길' 코스 등 다양… 코스별 1~4시간 소요

카누를 만드는 재료는 자작나무, 바다표범 가죽 등 다양한데, 춘천 물레길에는 적삼나무로 만든 클래식 우든 카누가 사용된다. 일일이 손으로 나무를 붙여 만들며 무게가 20킬로그램 안팎으로 가볍고 탄성이 좋다.

성인 남성이 들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최대 4백킬로그램까지 짐도 실을 수 있어 캠핑과 낚시 등 다양한 아웃도어 레저를







1 춘천 명동 닭갈비골목. **2**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3**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막국수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열흘 정도의 시간을 내면 자신만의 카누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레길에는 다양한 코스가 있다. 가장 쉬우면서도 대중적인 코스는 '붕어섬 길' 코스다. 송암스포츠센터에 자리한 물레길 운영사무국에서 출발해 붕어섬을 한바퀴 돌아본다.

붕어섬을 왼쪽으로 돌면서 삼악산과 의암댐을 바라보는 풍경이 탄성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카누잉 중 잠시 붕어섬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이 코스의 장점이다. 약 4킬로미터,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중도 길-1' 코스는 선착장과 중도, 하중도 샛길을 돌아보는 약 6킬로미터의 코스로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중도 길-2' 코스는 선착장에서 출발해 하중도샛길을 지나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돌아보고 나오는 8킬로미터 코스.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카누의 묘미는 느리고 여유롭다는 것이다. 패들링(노젓기)을 하면 배는 고요히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카약이나 수상스키, 요트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부드럽게 수면을 미끄러지는 카누

는 타는 이의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주위 풍경도 새롭게 다가온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노에 물살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게 모두 카누가 느리기 때문이다. 한결 여유롭게 주위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내키는 곳에 배를 세우고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카누만의 매력이다.

물안개가 피는 요즘 같은 가을철이면 카누는 더 매력 있는 레저가 된다. 우윳빛 물안개를 헤치며 유유히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은 마치 구름 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안갯속에 아련히 떠 있는 섬이며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물새의 풍경은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할 만큼 아름답다.

카누에 익숙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의암댐 주변 여행에 나서보자.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붕어섬. 1967년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인근에 위치한 삼악산에서 내려다보면 꼬리 잘린 붕어가 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 현재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다.

카누를 타고 가다 보면 멀리 중도유원지가 아스라이 보인다. 넓은 잔디밭이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는데다 자전거 대여소, 전동자전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여행장소로 좋은 곳이다. 최근에는 오토캠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애니메이션·춘천막국수박물관도 들러볼 만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꼭 들러보기를 권한다.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으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원리,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아트갤러리, 입체극장, 음향제작 체험실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금박쥐〉, 〈로보트 태권 V〉 등 추억의 만화영화 소품도 볼 수 있다.

춘천 여행에서 닭갈비와 막국수를 빼놓으면 허전하다. 춘천 명동에는 닭갈비 골목이 있는데 30여 개가 넘는 닭갈비집이 영업 중이다. 춘천 지역을 통틀어서는 약 4백~5백여 개 업소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막국수 역시 춘천의 대표음식. 1970년대부터 춘천 도심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막국수 전문점은 현재 1백30개 업소에 달하고 있다. 각종 야채와 소스를 곁들인 쟁반막국수, 뜨거운 육수에 말아먹는 온면막국수를 비롯해 산채막국수, 꿩막국수 등 막국수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막국수 체험박물관도 있는데, 춘천의 대표요리인 막국수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거대한 맷돌 모형이 있는 박물관 1층에서는 메밀의 생태와 효능, 유래와 분포 등을 알려준다. 또 전통적인 메밀 재배 방법과 현재의 제분, 반죽, 제면 방식도 보여준다. '막국수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 메밀가루를 반죽해 면을 뽑고 삶아 식당에서 곧바로 시식해 볼 수 있다. 체험 비용은 3천원이다.

닭갈비 골목 옆 중앙시장 '맛집 여행'도 재미

명동 닭갈비골목에서 중앙시장이 가깝다. 2백여 개가 넘는 점포가 이어지는데 시장의 뒷골목에 10여 점의 벽화와 설치미술 작품이 있는 '골목갤러리', 옛 물건들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장박물관' 등이 눈길을 끈다.

국밥집과 떡볶이집, 메밀부침개집 등 맛볼 음식도 많다. 가장 인기 있는 집은 '명동·명물떡볶이'.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배용준이 라면을 먹었던 분식집이다. 일본인, 중국인이 반드시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모듬접시를 시키면 떡볶이, 순대, 만두, 튀김, 도넛, 김밥, 어묵 등을 한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준다.

이 시기 즈음, 남이섬도 찾아보자.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나무가 가득한 산책길로 유명하다. 특히 메타세쿼이아와 잣나무, 자작나무 등이 들어선 숲길이 남이섬에서도 가장 운치 있는 곳이다. 섬 안에 기념품을 파는 가게와 식당, 리조트 등이 들어서 있어 하루쯤 돌아보기에 좋다. G

글과 사진·최갑수 (시인·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춘천IC로 나오면 된다. 상봉역에서 춘천역까지 전철이 다니면서 춘천여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춘천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가 20분 간격 운행한다.

사단법인 물레길(070-4150-9463, www.mullegil.org), **애니메이션 박물관**(033-245-6470, www.animationmuseum.com), **중도유원지**(033-242-4881, www.gangwondotour.com)

잠잘 곳 호텔과 펜션, 모텔 등 숙박시설이 다양하다. **춘천베어스관광호텔**(033-256-2525, www.hotelbears.com), **세종호텔춘천**(033-252-1191, www.chunchonsejong.co.kr), **엘리시안강촌**(033-260-2000), **꿈의궁전**(033-256-2295), **산토리니펜션**(033-263-0430) 등이 있다.

먹을 곳 막국수는 **샘밭막국수**(033-242-1702), **부안막국수**(033-254-0654), **단우물막국수**(033-242-1345) 등이 유명하다. 명동에 닭갈비 골목이 있다. **우성닭갈비**(033-254-0053), **일점오닭갈비**(033-253-8635)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가을철 청송의 주산지는 울긋불긋 물든 주왕산의 모습이 거울처럼 물위에 드리워져 환상적인 풍광을 만든다.

오메, 단풍 들었네!

국립공원 단풍 탐방로 75선… 설악산 18일 절정·내장산은 내달 첫째주

가을이 무르익으며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다. 설악산에서는 벌써 새색시 수줍은 볼 같은 단풍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에 발맞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전국의 아름다운 단풍 탐방로 75선을 추천했다.

가을 단풍놀이의 최고 명소로 손꼽히는 설악산은 벌써 단풍으로 물들었다. 10월 18일 즈음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 단풍은 한계령~중청(7.8킬로미터, 5시간 소요), 백담사~중청(12.3킬로미터, 7시간30분) 등 6개 탐방로가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또 다른 단풍 명소인 지리산은 10월 셋째 주부터 단풍이 시작돼 11월 초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산에서는 피아골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8킬로미터, 3시간30분), 뱀사골~화개재~반야봉(12킬로미터, 7시간) 등 10개 구간에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하는 내장산은 11월 첫째 주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입구~내장사(3킬로미터, 1시간), 공원입구~백양사(1.8킬로미터, 1시간) 등 5개 탐방로가 단풍구경의 최적지다. 특히 내장사와 백양사에 이르는 탐방로는 평지라서 어린이와 함께 트레킹을 즐기려는 가족 탐방객에게 적합하다.

지리산도 11월 첫주에 가장 물오를듯

이번에 공단이 추천한 단풍 탐방로는 대부분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간단하게 산행을 하는 정도의 코스들이어서 가볍게 트레킹을 즐기며 단풍놀이를 만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단풍놀이를 즐기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구간과 교량, 계단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국립공원별 단풍 탐방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단풍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악산 권금성과 한려해상 통영, 북한산 우이동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G

글·손수원 기자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s.or.kr ☎02-3279-2700

단풍 산행때 이것만은!

1 급격한 기온차에 대비하여 여분의 옷(바람막이, 양말 등)을 준비할 것.
2 등산스틱이나 헤드랜턴 등 안전을 위한 장비는 꼭 챙기자.
3 음주 산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금지!
4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즉시 하산할 것.
5 풀숲이나 맨바닥 등에 앉거나 드러누우면 유행성 출혈열 같은 발열성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우창우 기자

국립공원 단풍 탐방로 75선

국립공원	탐방적기	주요 탐방 코스
가야산	10월 28일 ~11월11일	6km, 2시간30분 대장경축전행사장→농산정→영산교
		3km, 2시간30분 백운동탐방지원센터→만물상→서성재
		2.3km, 1시간30분 청량사→남산제일봉
		4km, 2시간30분 해인사 용탑선원→토신길 갈림길→상왕봉
경주	10월 22일 ~11월 6일	8.5km, 4시간 암곡→무장봉→암곡
		6.3km, 3시간 불국사→토함산→추령
계룡산	10월 24일 ~11월 8일	7.6km, 3시간20분 갑사→용문폭포→금잔디고개→남매탑→동학사
		8.2km, 4시간30분 갑사→연천봉→전망대→은선폭포→동학사
		3.8km, 2시간30분 수통골탐방지원센터→수통폭포→빈계산→주차장
내장산	10월 29일 ~11월 11일	1.8km, 1시간 공원진입로→백양사
		1km, 30분 백양사→약사암
		3km, 1시간 매표소→내장사
		3.8km, 2시간 탐방안내소→원적암→벽련암→탐방안내소
		5.9km, 3시간30분 탐방안내소→벽련암→서래봉→불출봉→탐방안내소
다도해 해상	11월 2 ~16일	2km, 30분 청산도 지리→국화리
		2.4km, 1시간30분(왕복) 여수향일암
		6km, 3시간 40분 팔영산야영장→유영봉→적취봉→탑재→야영장
		1.5km, 1시간30분 홍도1구→2구 탐방로
		2.85km, 1시간30분 흑산도 샘골→반달봉
		2.3km, 1시간30분 손가락바위→돈대봉→읍구
		2.8km, 1시간30분 관매도 관매습지→독립문바위→방아섬
덕유산	10월 24일 ~11월 6일	3.8km, 2시간 서창탐방지원센터→안국사
		3.7km, 2시간 치목→안국사
		4.4km, 2시간 안성→동엽령
		6km, 2시간30분 구천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
북한산	10월 24일 ~11월 6일	7.2km, 4시간 산성탐방지원센터→국녕사→사모바위→삼천탐방지원센터
		3.6km, 2시간 육모정공원지킴터→백운대(우이능선)
		4.5km, 2시간 교현탐방지원센터→우이령정상→우이탐방지원센터
		1km, 1시간 회룡탐방지원센터→회룡사→자연관찰로
		1km, 1시간 송추분소→송추자연관찰로
변산 반도	10월 30일 ~11월 13일	5.5km, 2시간30분 남여치→내변산
		6.2km, 3시간 내변산→내소사
설악산	10월 15 ~25일	7.8km, 5시간 한계령→중청대피소
		6.2km, 3시간40분 흘림골→주전골→오색약수
		5km, 4시간 남설악탐방지원센터→중청대피소
		11.3km, 7시간 장수대분소→대승령→십이선녀탕계곡→남교리
		12.3km, 7시간30분 백담사→수렴동대피소→봉정암→중청대피소

국립공원	탐방적기	주요 탐방 코스
소백산	10월 15일 ~10월 24일	6.8km, 3시간 천동→비로봉
		5.1km, 2시간30분 어의곡→비로봉
		4.4km, 4시간 초암사→국망봉
속리산	10월 22일 ~10월 31일	6.6km, 4시간(왕복) 화북탐방지원센터→오송폭포→문장대→화북탐방지원센터
		7.9km, 4시간30분 화양동탐방지원센터→도명산→학소대
		6km, 3시간10분 법주사탐방지원센터→세심정→문장대
		4.9km, 4시간 떡바위→칠보산→절말
오대산	10월 18일 ~11월 1일	7km, 3시간 상원사→비로봉→상원사
		13.3km, 7시간 진고개탐방지원센터→노인봉→소금강
		8.1km, 3시간 월정사→동피골야영장→상원사
월악산	10월 22일 ~11월 1일	8km, 5시간 만수교→만수봉→만수교
		6km, 4시간 백운동→금수산→상학
		4.1km, 3시간30분 제비봉공원지킴터→제비봉→얼음골탐방지원센터
		4.8km, 4시간 상선암주차장→도락산→채운봉→상선암주차장
월출산	11월 7일 ~11월 16일	1.4km, 1시간 바람재삼거리→천황봉
		1.3km, 1시간20분 구름다리→천황봉
		2.7km, 1시간30분 도갑지구→억새밭
주왕산	10월 26일 ~11월 8일	15.6km, 6시간 상의주차장→3폭포→가메봉→1폭포→상의주차장
		8.6km, 3시간(왕복) 상의주차장→1·2·3폭포→상의탐방지원센터
		7km, 3시간(왕복)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절골탐방지원센터
지리산	10월 10~30일	10.2km, 7시간30분 유평→치밭목대피소→써리봉→천왕봉
	10월 15~30일	6.3km, 3시간30분 세석대피소→벽소령대피소
	10월 15일 ~11월 5일	5.8km, 4시간 백무동→장터목대피소
	10월 20일 ~11월 5일	6.5km, 4시간30분 백무동→세석대피소(한신계곡)
	10월 16일 ~11월 5일	12km, 7시간 반선(뱀사골)→화개재→반야봉
		14.8km, 6시간20분 정령치→바래봉→운봉
		3.1km, 2시간(왕복) 구룡삼곡→구룡폭포
	10월 16일 ~11월 5일	6.3km, 3시간30분 성삼재휴게소→고리봉→만복대→정령치
		9.4km, 3시간(왕복) 성삼재휴게소→노고단
	10월 25일 ~11월 5일	8km, 3시간 30분(왕복) 직전마을→삼흥소→피아골대피소
치악산	10월 20일 ~11월 5일	5.7km, 3시간30분 구룡탐방지원센터→비로봉
		4.1km, 2시간30분 황골공원지킴터→비로봉
		8.9km, 3시간 부곡공원지킴터→비로봉
		5.9km, 2시간30분 성남공원지킴터→남대봉
한려 해상	10월 29일 ~11월 6일	2.2km, 1시간20분 금산탐방로→정상
		7.2km, 3시간30분 진두→한산도망산→덮을개
		5.8km, 3시간 저구삼거리→거제도망산→명사
		8.8km, 5시간 학동고개→→가라산→저구삼거리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러스트·신용호

서커스단을 둘러싼 탐정극 〈그림자 살인〉

조선판 형사 콜롬보 '재미의 정석'

2009년 한국형 탐정극을 표방하고 개봉된 영화 〈그림자 살인〉(감독 박대민)은 독특하게도 20세기 초의 대한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확히 하자면 1907년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기 직전이 영화의 시대배경이다. 영화 말미에 고종이 등장하여 주인공 홍진호(황정민 분)와 광수(류덕환 분)를 헤이그에 밀파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도 영화는 주인공 홍진호와 광수를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 외에 알려지지 않은 수행원으로 설정한 것 같다.

대한제국은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칭제건원을 하면서 성립된 황제 국가였다. 비록 1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 이 기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매우 긴박한 시기였다. 준비가 채 되기 전에 밀어닥친 외래문물을 소화하기 급급했고 국권 피탈을 막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야만 했다. 애국지사와 친일세력 간의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영화는 대한제국기 황실의 친위대로 육군 참영이라는 고위직에 있었던 주인공 홍진호(황정민 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직에서 물러난 뒤 남의 불륜사나 파헤치는 삼류 탐정노릇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영화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1904년 일제는 '군사경찰훈령'을 통해 우리나라의 치안권을 피탈했다. 1907년 즈음 전직 육군참영이 거리의 탐정이 된 이유는 아마도 이 일 때문이었을 것이다.

역사는 영화 줄거리의 소품으로 봉사

이에 반해 홍진호의 부하였던 오영달(오달수 분)은 출세에 혈안이 되어 일제가 관리하는 경무국의 순사부장으로 변신, 주인공 홍진호와 갈등을 빚는다.

나라의 위기 앞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주인공의 유일한 목표는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것. 미국으로 가는 배삯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된다면 남의 불륜사를 파헤치고 거기에서 얻은 자극적 사진을 신문사에 파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던 홍진호가 우연히 살인누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한 의생 광수를 만나고, 장안의 화제가 된 살인사건에 뛰어들면서 비로소 진지하게 탐정 일에 흥미를 느끼고 몰두하게 된다.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양반가의 아씨마님 박순덕(엄지원 분)이 가세하면서 영화는 점점 재미를 더해 간다.

박순덕은 분명 머리에 쪽을 지고 나와 결혼한 여인임을 나타내지만, 남편은 등장하지 않는다. 과거 홍진호가 친위대 참영이었을 때 호위를 받은 인연으로 홍진호를 도와주는데 친위대의 호위를 받을 정도면 매우 중요한 가문의 여식이거나 황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폐쇄된 방직 공장에 자기 실험실을 꾸리고 갖가지 발명품을 만들 정도의 재력이 있으려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권세를 가져야 했다. 영화 말미에 박순덕과 홍진호가 만날 날짜를 신문 광고로 정하는 것을 이용해 고종이 나타난 것을 보면 박순덕이 황실 관계 인물임을 확실히 한 듯한데 더 이상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살인누명을 쓴 의생과 3류 탐정의 만남

영화는 1907년도의 한성 거리를 다소 현대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영화에 나오듯이 1907년 당시에도 분명 전차는 있었으나, 건물의 생김새나 간판이 즐비한 종로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옷차림 등은 외래 문물이 많이 정착한 1930~1940년대의 모습 같다. 탐정의 옷차림도 1907년의 옷차림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앞서간 느낌이 든다.

살인사건은 서커스단을 둘러싸고 일어나는데, 사실 이 서커스단이란 설정도 1907년과는 맞지 않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로야루-사카스단(로열서커스단)의 단장(윤제문 분)은 억관이란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단장인 서커스단은 1925년에 만들어진 동춘서커스단이 최초다. 서커스란 단어도 이 시기에는 쓰지 않았다. 앞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도 곡예단에 서커스란 이름을 붙인 것은 1913년 이후라고 한다.

서커스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있어 왔고 로마시대를 거치면서 원형무대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동물과 사람이 기예를 펼치고 마술과 연희 등을 동시에 공연하는 개념의 서커스는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처음에 말을 타고 벌이는 여러 가지 기예를 보여 주기 위해 무대를 원형으로 만들면서 서커스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곡마단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면 초창기에는 말이 하는 기예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서구의 서커스 개념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남사당패 등이 이미 외줄타기 등 여러 가지 기예를 구사하였기 때문에 서커스의 정착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인기도 상당했다.


조선DB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탐정극 〈그림자 살인〉은 독특한 소재와 황정민, 윤제문 등 출연 배우들의 개성있는 연기로 극적 흥미를 더해준다.

실제로 1925년 만들어진 동춘서커스단은 광복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단원이 2백50여 명에 이르렀다. 이 동춘서커스단을 통해 많은 연예인들이 배출되었는데, 영화배우 허장강, 코미디언 서영춘을 비롯 배삼룡, 백금녀, 남철, 남성남, 장항선, 가수 정훈희 등이 모두 동춘서커스단을 거쳐 갔다고 한다.

엉성한 시대배경 덮은 '스토리의 힘'

영화에서 서커스단은 다소 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특히 서커스 단원들이 일본풍의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는 반면, 착취당하는 가련한 두 소녀는 베로 된 남루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의 대비는 대한제국 시절 돈과 출세를 위해 무작정 왜색을 좇아간 사람들과 거기에 희생당한 가난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다.

화려하고 몽환적인 공연 뒤에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서커스단과 이 서커스단을 이용해서 용서받지 못할 욕망을 채우는 자들, 그리고 이들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다가 자신의 꿈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탐정단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소 헐거운 추리구조를 덮고 갈 만큼 상당히 재미있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한미사진미술관

흰색 봉우리로 된 산, 솜으로 표현된 구름…. 임택의 사진 시리즈 〈옮겨진 산수유람기〉는 동양화적 요소에 카메라 · 컴퓨터가 결합된 새로운 세계를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동양화가 임택의 개인전 〈옮겨진 산수유람기〉

카메라와 마우스로 그린 동양화

산수화의 고정관념을 깨는 산수화가 있다. 동양화가 임택이 사진작업으로 산수를 형상화한 〈옮겨진 산수유람기〉 시리즈다. 10월 29일까지 서울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임택 작가가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시도해 온 일명 '디지털 산수화' 최근작들을 선보였다.

산수화는 산수화이되 종이에 붓으로 일필휘지한 산수화가 아니라 우드락과 솜, 소금, 미니어처를 이용해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산수화다. 작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직접 촬영한 해와 달, 소나무, 자동차, 새, 사람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완성된 산수화는 관람객들에게 마치 현대적인 세련된 감각과 동양적 산수화의 매력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임 작가가 이처럼 붓 대신 사진기와 마우스를 들고 디지털 산수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과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을 운영할 때 아이들의 그림을 직접 촬영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다가 사진과 포토샵을 접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업을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한 콜라주를 시도하면서 지금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작업을 기꺼이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동양화의 대중화다. 동양화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탈피해 대중에게 더욱 재미있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일까? 임 작가의 사진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은 "어머나! 재밌다"며 감탄사를 자아낸다. G

글 · 김효원(스포츠서울 경제사회부 기자)

문의 한미사진미술관 www.photomuseum.or.kr ☎02-418-1315


옮겨진 산수유람기-봄


옮겨진 산수유람기-여름

한미사진미술관


옮겨진 산수유람기-가을


옮겨진 산수유람기-겨울

한미사진미술관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보는 전시 No! 전시는 체험하는것!

2014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관' 쇼케이스 행사 열려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오는 2014년 광주광역시 동구에 개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추진하는 문화전당에는 전시면적 6천6백여 제곱미터의 복합전시관도 건립된다. 개방형 전시공간인 복합전시관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옥상에 마련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관' 쇼케이스 전시장의 모습이다. 내부에 들어가면 또 다른 구조물이 나오는 '더블 레이어 형태'로, 대나무로 제작됐다.

이 복합전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쇼케이스가 서울에서 열린다.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극장 옥상에 쇼케이스를 위한 특별 전시장이 있다. 이번 쇼케이스는 향후 문화전당 내 복합전시관에서 선보이게 될 전시콘텐츠를 소개하고,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10월 14일부터 3일간 열릴 쇼케이스에서는 기존 전시(展示)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선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정재원 연구원은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체험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쇼케이스의 주제가 '탈(脫·벗어남)'"이라며 "관객이 진정한 '탈(脫)'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90분의 쇼타임 중 40~50분가량은 관객 체험으로 채워진다.

10월 14일부터 한예종 예술극장 옥상서 열려

음악, 무용, 4D 디지털 영상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한다는 것도 이번 쇼케이스의 특징 중 하나다. 관객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모두 활용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더블 레이어(Double Layer) 형태의 대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 전시장은 특유의 향기로 관객의 후각을 자극하고, 전시장 내부에 깔릴 안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공개되지 않은 깜짝 이벤트에는 관객의 촉각을 자극할 히든카드도 준비돼 있다.

행사의 총 연출은 2009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총감독했던 산업디자이너 은병수씨가, 시나리오는 이나미 홍익대 교수가 맡았다. 4D 디지털 영상은 (주)디스트릭트가 담당했다. 쇼는 1부와 2부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는데, 현대무용가 안은미씨가 1부를, 그래픽 디자이너 전용성씨가 2부를 기획·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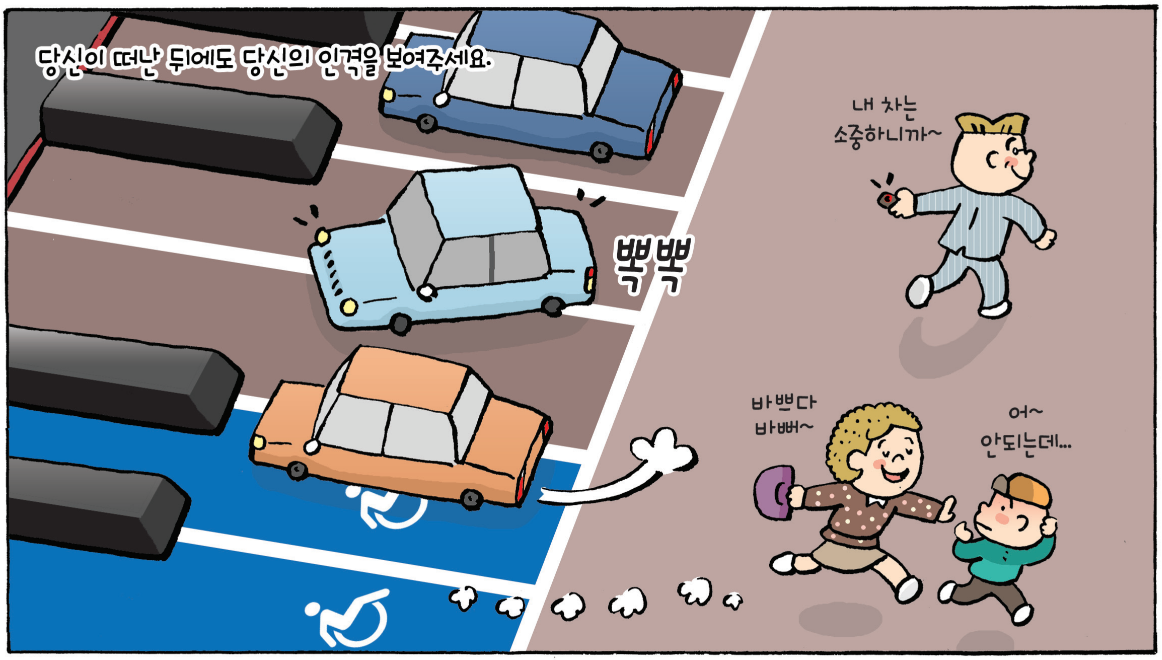
1부에서는 안은미씨가 빛, 소리, 무대장치가 융합된 퍼포먼스 '정원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2부는 관객 체험으로만 구성되며, 관객은 여기에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던지기 위한 '몸부림'(<서유기·西遊記>의 스토리텔링을 재해석)"과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오는 '탈해(脫海)'"를 각각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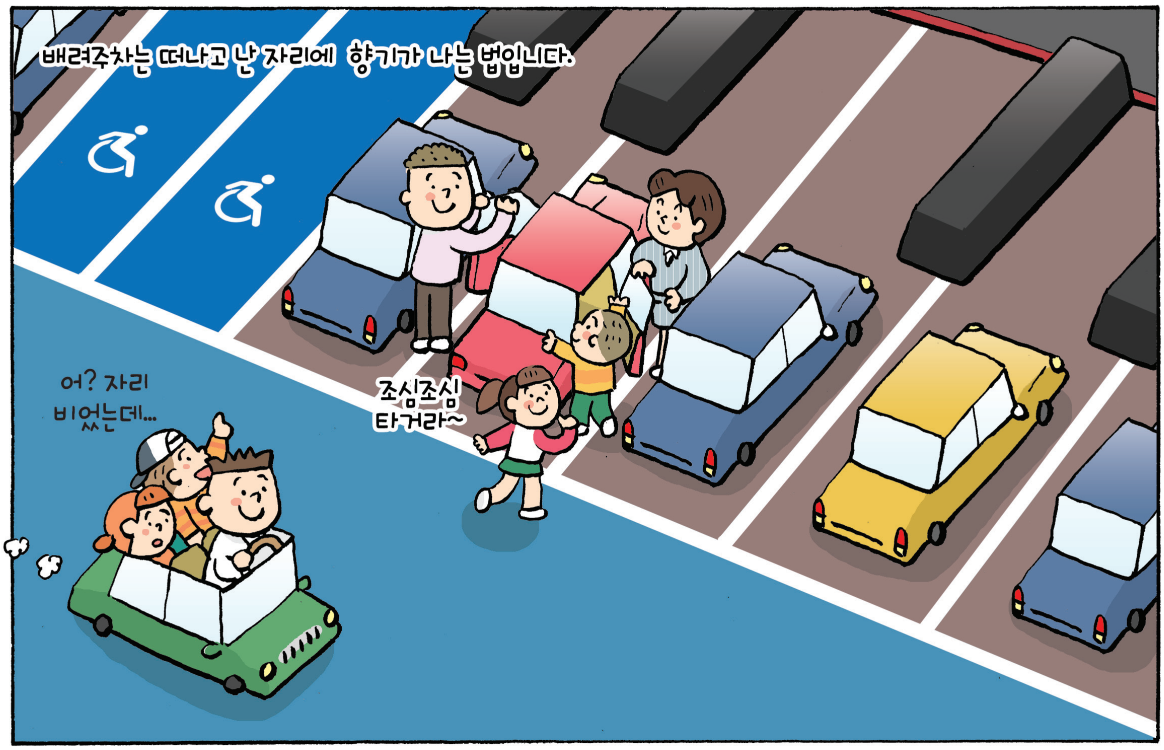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 연구원은 "안무가와 조명 연출가, 영상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호흡했다는 점도 이번 쇼케이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다. G

글·박소영 기자

으뜸주차향기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성숙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생활화 합시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종교는 바보들의 것?



알랭 드 보통 지음, 박중서 옮김
청미래 펴냄 · 1만4천원

"영어로 썼지만 영어권에서도 5개월 후쯤 출간될 책이 한국에서 먼저 나오게 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한국은 참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7일,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한국어판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쓴 영어 책이 한국어로 먼저 번역되는 현실은 그의 한국 내 인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그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비롯해 10권의 책으로 국내에서만 1백만 부 판매를 기록한 작가다. 아니나 다를까, 출간 1주가 조금 지났는데 각종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사랑' '건축' '여행' 등 다양한 주제를 섭렵한 드 보통이 자신의 성장과정까지 털어놓은 내밀하면서도 사회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세속적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종교'와 '신'은 금기였다. 그의 부모는 "종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 "종교는 바보나 믿는 것"이라고 했고, "지성인이라면 과학을 공부해야지"라고 했다. 그렇지만 어린이·청소년에게 '금지'는 '신비'와 동의어. 호기심은 더욱 커졌고, 20대를 넘어서면서 종교를 금기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 비지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는 드 보통이 그렇게 키워온 유대교, 그리스도교(특히 가톨릭) 그리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무신론자가 종교를 존중하게 된 여정 담아

책의 주제는 거칠게 말하면 "종교를 신앙인의 전유물로만 남겨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이다. 드 보통은 무신론자에서 출발해 종교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된 여정을 적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시스템을 비롯해 여행(순례), 호텔업(숙박), 공연(음악, 춤 등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에서 배울 점이 무궁무진하다고 역설한다.

교육과 미술·음악은 그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각광받는 것 같지만 종교는 '옛 아이디어' 즉 진리를 연중 내내 달력에 맞춰 강조하고 교육함으로써 신자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반복 주입한다.

"무신론의 상실"이라는 기자간담회 때 저자의 말처럼 그는 이미 종교(제도)에 대한 존중과 매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지적(知的)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작가의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가 잘 녹아 있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새로 나온 책

고역열차

니시무라 겐타 지음 | 다산북스 펴냄 | 1만1천원



제144회 일본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다. 부친이 성범죄로 수감된 뒤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자의 열아홉 살 무렵 실제 경험을 담았다. 소설은 친구도 여자도 없고 술로 마음을 달래며 생계를 꾸려가는 주인공 간타의 삶을 다룬 이야기다. 저자는 간타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어린 시절 겪었던 치욕을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그렸다.

인섹토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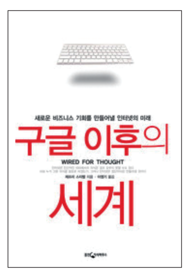
휴 래플스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2만8천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피조물인 곤충. 인류학자인 저자가 과학은 물론 역사, 문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시각으로 곤충을 해부한다. 이 책은 A부터 Z까지 백과사전식으로 구성됐다. 'C' 방사능 오염으로 기이하게 변형된 곤충들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야기부터 'D' 상하이에서의 귀뚜라미 싸름 열풍까지 각각의 이야기를 다뤘다.

구글 이후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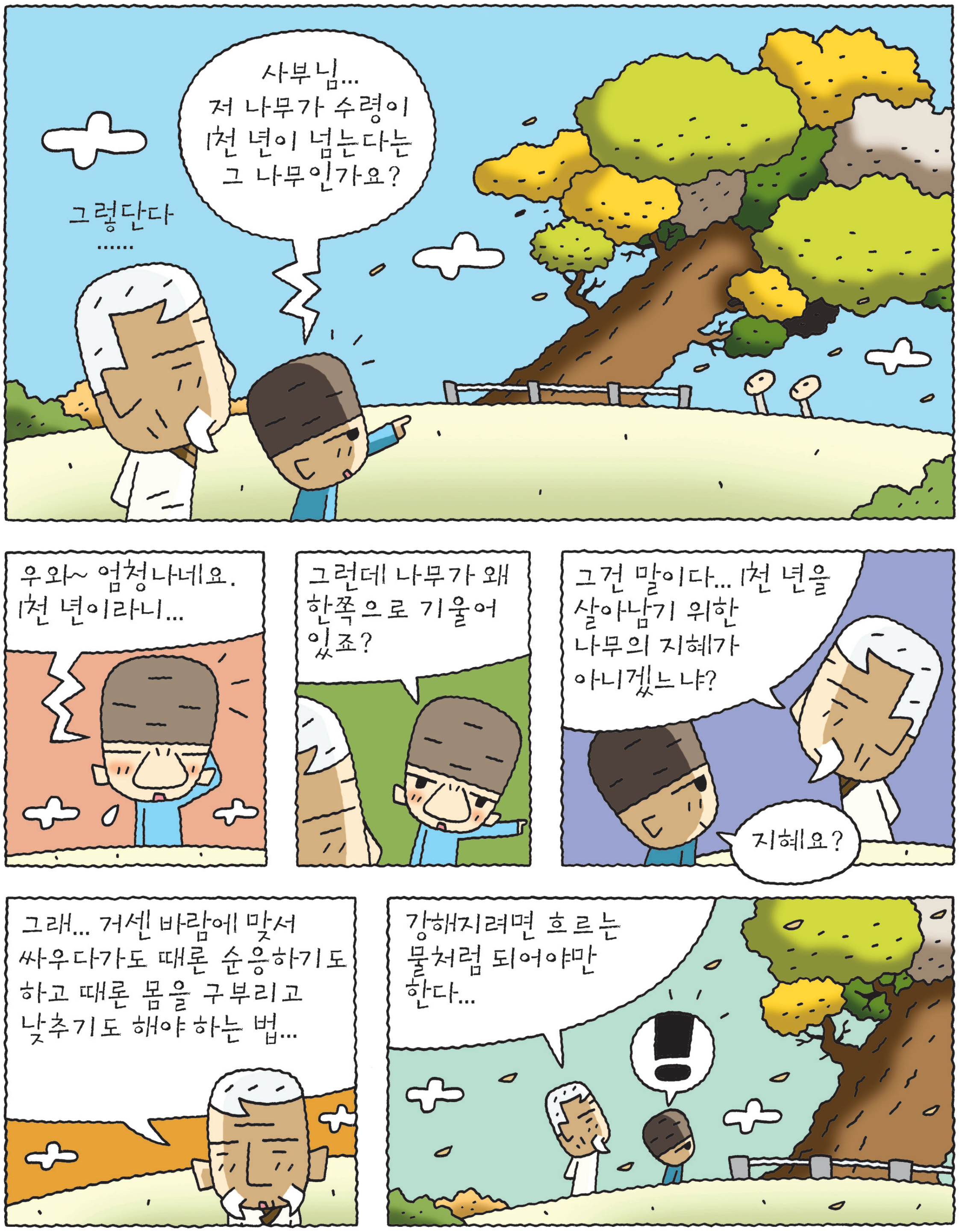
제프리 스티벨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1만4천원



IT 업계가 뇌 과학에 주목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인터넷은 뇌로 진화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바꿀 거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서로 대화하는 기계들에 의해 다루어진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이 책은 인터넷의 잠재력과 미래의 산업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다수의 IT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경영한 CEO 제프리 스티벨이 제시하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1천 년 된 나무의 지혜

글과 그림 · 최영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고 합니다. 선뜻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

‘생명의 땅’ 순천만·동천에서

생태·문화 향연 펼친다


순천시 관광진흥과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 ‘순천만’에서 생태환경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가 열린다.

축제 **순천만 갈대축제**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생명의 땅 ‘순천만’에서 생태와 문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올해는 축제장을 이원화해 순천만과 동천이 가진 생태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번 축제는 흑두루미 정원 점등식, 레이저쇼와 같은 이색 생태 퍼포먼스를 포함해 갈대길 걷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수달과 은어가 서식하는 동천에서는 테마공간을 조성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일시 10월 20~24일 **장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일대 **문의** 061-749-4221

공연 **에버그린 뮤직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각 장르별 싱어송라이터가 한자리에 모인다. 밴드 음악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랑과 평화’, 3대 기타리스트로 알려진 김태원, 신대철, 김도균을 비롯해 포크 음악의 대표 가수 윤형주, 김세환 등이 출연한다. KBS 프로그램 〈Top Band〉를 통해 알려진 Toxic, 게이트플라워즈 등이 선배 가수와 한 무대에서 음악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22~23일 **장소** 난지 한강공원 **문의** 02-334-3131

전시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올해로 46회를 맞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1966년 제1회 이후 문화경제 시대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디자이너들의 등용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의 우수 디자인 회사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디자인 비즈니스 연계를 높이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형성한다. 출품작들은 친환경, 재해, 사회이슈 등에 대해 디자인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G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10월 20~23일 **장소** 코엑스 **문의** 031-780-2167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메디컬 루나틱	성균관대 새천년홀	10월 30일까지	02-333-7203
난타	홍대 난타 전용극장	10월 31일까지	02-739-8288
언틸 더 데이	문화일보홀	10월 30일까지	1544-5555
여우비	미라클 씨어터 2관	10월 30일까지	02-742-7261
배우 김선경의 〈아이러브 뮤지컬〉	국립중앙박물관 메인 오디토리엄	10월 18일까지	1544-5955
연극			
그남자 그여자	아츠플레이씨어터 1관	10월 30일까지	1577-5878
연	대학로 문화공간	10월 16일까지	02-747-1010
소크라테스 학원	대학로 아리랑 소극장	10월 16일까지	010-9172-0361
가을애	대학로 소극장	10월 16일까지	010-7447-7521
잇츠유	KBS 수원아트홀	10월 23일	031-216-5201
콘서트			
야니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0월 14일	02-3141-3488
박정현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0월 14~16일	031-783-8000
리턴 투 포에버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4일	02-6292-9370
015B 콘서트	어린이대공원 내 돔아트홀	10월 14~15일	02-546-4621
클래식			
프라하 필하모니아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2~23일	02-338-3513
MET 9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호암아트홀	10월 14~16일	02-751-9606
에우로파 갈란테 & 이안 보스트리지	LG아트센터	11월 4일	02-2005-0114
오페라/무용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8~9일	02-541-3183

10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9월 25일~10월 1일

곡명	가수
1 Sixth Sense	브라운아이드걸스
2 Hello	허각
3 파라다이스 (Paradise)	인피니트
4 STEP	카라
5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다비치
6 난 좋아	성시경
7 Hot Shot	브라운아이드걸스
8 어제보다 슬픈 오늘	김건모
9 Who Am I (Feat. 유희열, 정재형)	UV
10 안돼	양요섭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참여 경품이벤트
7대 자연경관에 투표하면
엑센트, 모닝, 태블릿 PC 등 경품이 와르르~
1 현대차
HYUNDAI
엑센트 2대, 아이패드 등
http://www.hyundai.com
현대차 이벤트 게시판 참고
Samsung GALAXY Tab
2 기아차
KIA
모닝 1대, 갤럭시 탭 등
http://www.kia.co.kr
기아차 이벤트 게시판 참고
내가 제주 투표왕!
3 KT
kt
태블릿 PC 7명 등
http://jeju.olleh.com
이벤트 사이트에서 투표하면 응모완료
온라인 투표하고 5000명 선물받기
4 패밀리마트
Family Mart
모바일 상품권(1,000원) 5천명
http://www.familymart.co.kr
패밀리마트 이벤트 게시판 참고
5 스포츠토토
toto
제주왕복항공권 5명 등
http://www.sportstoto.co.kr
스포츠토토 이벤트 게시판 참고
EVENT 01 Single 7Days
EVENT 02 EveryDay
6 제주관광공사
제주왕복항공권 10명 등
http://www.ijto.or.kr
제주관광공사 이벤트 게시판 참고
지금 바로! 001-1588-7715를 눌러 주세요.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 문자 투표 : ☎ 001-1588-7715로 제주 전송 (150원)
• 전화 투표 : ☎ 001-1588-7715 → 1번 → 7715 (180원)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문자 전화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계정수 만큼 가능.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Vote for Jeju N7W www.N7W.com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남한강 자전거길 – 양수리(북한강 철교)
4대강새물결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
1,692km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있는 나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어디를 가도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라
서울 한강과 여주 이포보를
연결하는 27km 남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서울
중앙선
남양주
팔당역
팔당대교
봉안터널
6
북한강
철교
양수역
양수대교
하남
45
하남IC(중부고속도로)
팔당호
342
정암산
경기도
신원역
국수역
중앙선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
양평
문화원
37
양평
충주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른다
NAVER +Mobile
4대강